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337524

2020년 8월

석사학위논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인산 혈액형 사상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패 션 뷰 티 전 공

전 진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인산 혈액형 사상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 연구

A Study on the Association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San Body Constitution Based on Blood Type, and Color Preferences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패 션 뷰 티 전 공
전 진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인산 혈액형 사상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 연구

지 도 교 수 손 영 미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전 진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진숙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조 규 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윤 갑 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손 영 미 (인)

2020년 6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 목차 ····· iii
Abstract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 가설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4
제1절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 4
1. 에니어그램의 역사 및 개념 ····· 4
2. 에니어그램의 활용 ····· 12
제2절 혈액형사상체질 ····· 14
1. 체질의 정의 및 역사 ····· 14
2. 성격과 체질의 관계 ····· 17
제3절 색상선호도 ····· 22
1. 색의 개념 ····· 22
2. 색상선호 이론 ····· 26
제4절 색상선호도, 성격, 체질의 관계 ····· 32

제3장. 연구 방법 ····· 36
제1절 연구 대상 ····· 3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측정 도구 ····· 36
제3절 분석 방법 ····· 37

제4장. 연구 결과 ····· 39
제1절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 39
제2절 성격과 색상선호도의 관계 ····· 48
제3절 체질과 색상선호도의 관계 ····· 53
제4절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의 관계 ····· 58
제5절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관계 ····· 59

제5장. 결론 및 토의 ····· 66
제1절 연구의 결론 ····· 66

【참고문헌】 ····· 70
【부 록】 ····· 75
국문초록 ····· 7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힘의 중심 ····· 8
<표 2> 에니어그램 유형 및 특징 ····· 12
<표 3> 사상의학 체질별 신체적 특성 ····· 16
<표 4> 사상체질별 성격적 특징 ····· 21
<표 5> 색채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 24
<표 6> 색의 3속성에 따른 감정 변화 ····· 25
<표 7> 색상별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 ····· 28
<표 8> 선호색상 선택 순서에 따른 색상의 의미 ····· 29
<표 9>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연관 색상 연구 정리표 ····· 34
<표 10>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에 대한 분할표 ····· 38
<표 11> 연구대상의 연령대 및 혈액형 분포도 ····· 40
<표 12>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성격유형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41
<표 13>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체질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42
<표 14>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44
<표 15>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46
<표 16>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47
<표 17> 연구대상의 성격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49
<표 18> 연구대상의 성격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51
<표 19> 연구대상의 성격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52
<표 20> 연구대상의 체질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53
<표 21> 연구대상의 체질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54
<표 22> 연구대상의 체질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57
<표 23> 연구대상의 성격유형과 체질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 58
<표 24> 연구대상의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59
<표 25> 연구대상의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62
<표 26> 연구대상의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64
<표 27> 연구문제 내용 및 탐색적 분석 결과 ····· 6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Association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San Body Constitution Based on Blood Type, and Color Preferences

Jun Jin Sook
Advisor: Prof. Shon, Young Mi, Ph.D.
Fashion Beauty,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e study on color has been attempted with various approaches in diverse academic fields especially physics, psychology, art, etc. and today colors have been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most areas of human life, including architecture, design, health, physiology, and fashion.

Preferences for colors vary depending on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nvironmen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habitation, and economical background including the level of personal income and consumption. Physical, aesthetic, and psychological impressions regarding colors differ depending on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feature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of color preference by CRR analysis method and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 the blood type based body constitution type was explored to verify that color preference can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personality and body constitution.

For the stud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0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dult women in their 20~60's in Korea.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 test paper consisting of 81 questions was used to identify the personality type, and the blood type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theory of In-San blood type based body constitution type theory to identify the body constitution, and three preferred colors were listed in order to identify the color preference.

195 survey data were obtained as the 6 respondents with incomplete data were excluded, and the results of the compiled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type of enneagram personality and the first preference of color are found to be related. It has been shown that red is the first preference color for adult women of instinctive type, no color preference is suggested for adult women of feeling based type, and purple is the first preference for adult women of thinking based type.

2) In-San blood type body constitution and the second preference of color are found to be related. It has been shown that yellow is the second preference for Tae-Eum type(A blood type), purple is the second preference for So-Eum type(B blood type), blue is the second preference for Tae-Yang type (AB blood type), and red is the second preference for So-Yang type(O blood type).

3) The type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 and the type of body constitution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re found to be related. It is shown that the ratio of Tae-Yang type(AB blood type) is relatively high in the case of instinctive typed adult women, and the ratio of Tae-Eum type(A type) is relatively high in the case of adult women of feeling based type. The ratio of So-Eum type(B blood type) and So-Yang type(O blood type) i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in the case of adult women of thinking based type.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irst preference color ca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 and the second preference color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body constitution type based on blood type, and the body constitution and personality type can be related mutually.

It is confidently suggested that applying different colors of preference considering the personality type and body constitution of consumers would b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lor-based industries. This suggestion is also considered highly important in the field of fashion beauty, and can be utilized in the fields such as the customized color therapy, the customized aromatherapy and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customized fashion item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도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 및 피로감, 우울감,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증상들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체요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일상생활에 접목하기 쉬운 체질별테라피와 컬러테라피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빛은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빛을 받는 물체는 물체 본연의 색을 반사 시켜 색에 대한 정보를 인간의 눈을 통하여 시신경과 대뇌에 전달된다. 대뇌에 전달된 색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경험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며,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된 색 정보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1], 이 과정에서 세라토닌, 멜라토닌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조절되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색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 심리학, 예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건축, 디자인, 보건, 생리학, 패션 등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2]

인간의 색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 연령, 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개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의 지리적 특성, 개인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3],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색에 대한 물리적, 심미적, 심리적 인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4]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선호색상은 관계가 있다. 개인의 성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유형에 다양한 측정 도구가 존재한다. MBTI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외향적, 내향적 성격에 관계없이 푸른색 계통의 한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선호도가 두 번째인 색을 살펴보면 외향적 성격의

1) 김용숙, 박영로 (2007),『색채의 이해』, 일진사. p.223.
2) 김지현 (2014),「스마트 폰 외관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3) 문은배(2011),『색채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p.257.
4) 이은화(2018),「네일 서비스 추구혜택과 색채 선호도가 고객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유자는 연두, 초록, 갈색, 분홍 등의 중성 계열 색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인 성격 소유자의 경우 무채색으로 나타났다.[5] DISC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강한 자아의 소유자로 목표 지향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유형의 사람은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강한 톤의 장파장 색상을 선호하고, 낙관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열정이 넘치는 성격유형의 경우 파랑, 남색과 같은 강한 톤의 단파장 색상을 선호하고, 끈기가 강하고 안정적이며 충성심이 강한 성격유형은 자주, 청록과 같은 강한 톤의 색상 및 검정을 선호하며,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유형은 약한 톤의 회색과 약한 톤의 자주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를 본능, 정서, 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성격유형을 장형(본능 중심 성격유형), 가슴형(정서 중심 성격유형), 머리형(사고 중심 성격유형)으로 구분하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라서 상징되는 색과 선호하는 색상이 실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양상은 개인의 성격, 기질, 환경, 경험, 기억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이나 연령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7], 개인의 기호,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색에 대한 감정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고[8], 따라서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양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색에 대한 인상, 조화 등에 대한 감성적인 면과 더불어 미적 반응과 공감각에 의한 생리적인 영향을 포함하고[9], 소비 생활과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인간의 성격유형은 개인의 체질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상체질 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 소유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10][11]

---

5) 한정아(2011),「MBTI에 의한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선호 컬러 및 톤의 관련성」, 한국디자인문학회지, Vol, 17(1), pp.650-651.
6) 정현선, 김예원(2018),「성격유형에 따른 자아이미지와 색채선호도의 상호연계성 연구-20-30대를 대상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9(1), pp. 519-520.
7) 김지현 (2014), Op.cit., p.6.
8) 김정희(2010),「색을 통한 미술 심리치료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9) 한정원(2012),「제품색채에 따른 소비자 감성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0) 최현민(2005),「체격, 체력, 신체조성 및 성격유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9-5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상체질의학은 기질적인 특성과 성향인 성질재간(性質才幹), 용모와 말하는 기세인 용모사기(容貌詞氣), 체질별로 자주 겪는 체질병증(體質病症), 골격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형상인 체형기상(體刑氣像), 평상시의 마음과 추구하는 목표인 항심심욕(恒心心慾)을 종합하여 개인의 체질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으로 부르고 있다.[12)]

색채심리학은 개인이 선호하는 색과 개인의 성격, 정신적, 정서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Luscher(1987)가 제시한 색채심리검사는 선호하는 색상과 성격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빨강, 오렌지, 밝은 노랑, 파랑, 초록, 어두운 파랑, 보라, 갈색, 회색, 검정을 피험자에게 보여준 다음, 피험자가 제일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기반으로 성격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하워드와 도로시(2003)가 제시한 CRR(color reflection reading) 분석법은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청록색, 보라색, 마젠타(심홍색)의 8가지 색 중 선호하는 색 3개를 고르게 한 후, 그 순서와 색이 의미하는 것을 토대로 기본적인 성격, 현재의 상태, 미래의 목표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색상선호도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성격유형과 체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색상은 여러 가지 색을 선택하는 순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과 체질에 따른 색상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고객맞춤형 시대에 개인의 체질별 맞춤관리 서비스로 고객관리의 절적향상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계발 및 제품 개발에 기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패션뷰티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의 성격유형과 체질을 고려하여 선호색상을 다르게 사용할 시 색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패션뷰티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 맞춤형 컬러테라피, 고객 맞춤형 체질별 아로마테라피, 고객 맞춤형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11) 박효인(2000),「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관계」,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4-51.

12) 김봉현, 이세환, 조동욱(2008),「음성분석 정보 값 비교를 통한 사상체질 태음인의 분류」,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15(1), pp.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뷰티 미용산업에서 20년 가까이 고객들의 스킨케어와 바디케어 관리를 하면서 육체의 피로 즉 근육 이완과 혈액 순환 관리에 국한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각 개인의 체질별, 성격별, 심리적, 육체적 밸런스의 불균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혈액형사상체질, 3가지 색상선호도에 대한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성격과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2: 체질과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3: 성격과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1) 에니어그램의 역사 및 개념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 유형을 아홉 가지로 구분하고, 그 성격 유형들의 연관성을 기하학적으로 표시한 도형으로 여러 고대 전통의 영적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니어그램의 유래와 계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과 관점이 존재한다.[13]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니어그램의 유래는 약 2,000여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계의 수피(Sufi)파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이 구르지에프(Gurdjieff: 1872~1949)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설이다.[14] 하지만 이병창

13) 김경미(2018).「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바한 청소년 학습태도 척도 개발 및 검증」, 숙명여자대학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1)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서기 591년에 태어나 사실과 수피파의 수행체계가 9세기 이후에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구르지에프의 제자 중 한 명인 존 베네트(Bennett) 조차 14세기 이후에야 에니어그램의 상징 체계가 최초로 묘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된 근거로 에니어그램이 수피파에 위해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현대의 에니어그램은 전통적으로 철학과 심리학과 관계가 같다. 오스카 이카조(Oscar Ichazo: 1931~2020)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은 전통적인 철학을 에니어그램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서, 각 개인의 에고는 삶의 초기에 인간의 마음, 의식, 무의식의 총체인 사이키(psyche) 내에서 고착화되고, 이러한 에고 고착화(ego fixations)는 개인의 심리적인 성격이 발달됨에 따라서 핵심적인 자아이미지로 변하게 되고, 이를 9각형(enneagon)으로 표현하면서 현재 사용되는 에니어그램의 원형을 탄생시켰다. 클라우디오 나린조(Claudio Naranzo: 1932~2019)는 자신이 연구한 심리체계와 에니어그램의 연관성을 결합하여 가르치면서,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유사한 점을 이야기 하고,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에니어그램 체계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15] 돈 리차드 리소(Don Richard Riso: 1946~2012)는 에니어그램이 수학적인 체계에서 기원 되었으며, 에니어그램은 이슬람 체계도 아니고 수피즘의 체계도 아닌 피타고라스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에 발달의 수준 개념을 도입하였다.[16] 그는 또한 1991년에 러스 허드슨(Russ Hudson)과 함께 리소-허드슨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RHETI)를 만듦으로써 에니어그램 성격 연구의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17]

에니어그램에서 에니어(ennea)는 9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수사 접두어이고, 그램(gram)은 그라모스(grammos)에서 나온 단어로 의미는 점(point) 또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에니어그램은 통합을 상징하는 원(circle), 분리되어 있는 삼각형(triangle)과 6가원소(六價元素)인 헥사드(hexad)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상징은 우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성한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김상구,

14) 김현수(1999),「에니어그램의 계보와 발전과정 소고 - Gurdjieff와 Ichazo의 계보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과학학회지, Vol.3(2), p.20.
15) 김현우(2005),「에니어그램의 측면에서 본 영적 지도」.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6) 이순자(2003),「구르지예프, 베어 및 리소의 에니어그램 비교」,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17) 박현아(2008),「윌버의 의식스펙트럼 입장에서 본 에니어그램 자아초월적 의미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6)[18]. 에니어그램의 원(circle)은 우주 만다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성, 단일성, 통합성을 의미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원은 그 주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9개의 점이 있으며, 9개의 점을 잇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니어그램의 삼각형과 헥사드는 9개의 점을 연결하고 있는 도형이다. 원둘레는 끊임없이 이루어진 연속 순간의 시간적 흐름을 의미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의 삼각형(triangle)은 안전과 균형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여러 철학 및 종교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3의 법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능동적, 수동적, 중립적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함을 의미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의 헥사드(hexad)는 사물과 인간 성장의 진행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19]

에니어그램은 개인의 성격을 아홉 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의 중심으로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점 9, 6, 3은 생명력과 에너지의 주요 중심으로 각 점은 장중심(본능), 가슴중심(감정), 머리중심(사고) 유형의 특징을 상징한다. 헥사드는 점 1-4-2-8-5-7-1을 연결하는 육각형으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장을 위한 스트레스와 이완, 부정적 움직임과 긍정적 움직임에 대한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다.[20] 에니어그램의 각 성격유형은 양 옆에 이웃한 날개 유형을 가지고 있다. 기본 성격유형은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양 옆의 날개 유형은 기본 성격유형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 성격유형과 양 옆의 날개 유형은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을 구성한다.[21]

에니어그램에서는 개인의 성격유형을 장형(본능형), 가슴형(정서형), 머리형(인지형)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인간의 세 기능인 본능, 정서, 인지는 인간 신체의 미묘한 중심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 성격의 고착은 이 세 중심들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 기능은 서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 가지 기능만 사용할 수 없다.[22]

본능 중심의 장형인 유형1, 유형8, 유형9는 현실에 대한 저항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18) 김상구(2006),「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
19) 박현아(2008), Op.cit., pp.15-17.
20) 오명숙(2015),「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18.
21) 이미희(2012),「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국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22) 김주희(2011),「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부모코칭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으며, 기본적인 삶의 기능, 생존 등에 관심이 있고, 공격과 억압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장형은 에너지의 중심이 몸으로 무게 중심이 하복부와 소화계통에 쏠려 있으며, 본능과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 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형은 분노가 압도적인 감정으로, 이는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장형의 성격 소유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23], 자신의 욕구에 따라 상황에 대응하며, 대체적으로 용감하고 객관적이며 원칙적이고 비타협적이어서 어떤 논쟁에서도 명확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24] 아울러 건강한 에너지 상태일 때는 자신 안의 깊은 지혜에 반응하여 주위 환경과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지만, 불건강한 에너지 상태일 때는 주위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겁이 없고 강한 지배욕을 가지고 있다.[25]

정서 중심의 가슴형인 유형2, 유형3, 유형4는 대체적으로 자신과 관여된 사람들이나 자신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해 고려하는 성향이 강하고, 타인과 맺는 관계와 접촉의 감각이 예민하여 상황파악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가슴형의 중요한 주제는 정체성과 적대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으며, 자기 확신이 강할 때는 쾌활해 보이고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과 타인에게 숨기려고 하며, 자기방어적인 측면에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26] 가슴형은 에너지의 중심을 나타내는 신체적 기관은 가슴과 순환기계통이다. 가슴형 성격 소유자는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과 미소 짓는 용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관심을 받으려 하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27] 또한 인간을 존중하여 에너지가 타인을 향해 움직이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경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경향이 강하다.[28]

---

23) 조주영(2006),「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분석」, 에니어그램연구, Vol.3(2), pp.40-41.
24) 박재원(2012),「에니어그램 집단상담을 통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25) 윤지선(2006),「자아성장을 위한 에니어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구르지예프와 리소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28.
26) 김경미(2018), Op.cit., p. 22.
27) 상갑선(2009),「사상체질과 에니어그램에 따른 대학생의 비만 연구」,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
28) 박재원(2012), Op.cit., p.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지 중심의 머리형인 유형5, 유형6, 유형7은 관찰과 분석, 비교와 대조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성향이 있으며, 에너지의 중심을 나타내는 신체적 기관은 머리이다. 대체적으로 인지형 성격 소유자의 신체적 특징은 몸이 왜소하고 허약해보이며, 빈약한 근육으로 여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인지형은 사고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의해 지배를 받고 눈으로 먼저 보는 성향이 강하다. 머리형 성격유형의 소유자는 자신의 결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타당성이 있는지에 마음을 쓰는 성향이 강하며, 논리적 귀결과 과정, 규정의 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권위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인지형은 건강할 때에는 통찰력, 아이디어, 주위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유형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불건강할 때에는 사고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끄럼을 많이 타고 소심하며, 주위를 경계하는 성향이 있고, 자기방어적인 측면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29)]

윤운성(2004)은 에니어그램의 세 가지 중심 유형인 장형, 가슴형, 머리형의 중심 에너지와 관련 있는 신체기관, 일반적 성격, 외형적 인상, 특징적 감정, 관계된 감각, 주된 관심, 상황파악 방법, 의사결정 방식, 추구함, 관계되는 지능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힘의 중심

유형	장형(8, 9, 1)	가슴형(2, 3, 4)	머리형(5, 6, 7)
신체기관	소화기	순환기	머리, 중앙신경조직
성격	본능적, 성적, 적대적	인간중심, 사교적, 사회적	지식, 자기보존사고
인상	단호한 눈, 도전적 안색	온화, 매력적인 미소	부끄럼, 소식
감정	분노, 공격적	수치심, 사회적	공포, 보존적
감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
관심	현재, 자신, 힘	과거, 인간, 상징	미래, 전반적 상황
상황파악	통제, 진행	직관, 감정	관찰, 비교, 분석
의사결정	당연, 의무, 원칙	관여된 사람	논리, 이성
추구	독립성	주의	안전
지능	신체지능(BQ)	감성지능(EQ)	지적지능(IQ)

29) 상갑선(2009), Op.cit., p.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니어그램의 세 가지 중심 유형인 장형은 유형8, 유형9, 유형1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슴형은 유형2, 유형3, 유형4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형은 유형5, 유형6, 유형7로 구성되어 있다. 이순자(2003)은 각 성격유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형(본능형)인 유형8(지도자 유형)은 스스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끄는 유형으로, 독립적이며 의지력과 활동력이 좋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활력을 느끼는 유형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직설적인 의사 표현으로 인하여 타인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체계로 타인과의 교류를 멀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다. 유형8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며, 모든 상황을 힘으로 통제하려 하는 성향이 있고, 저항이 있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공격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장형(본능형)인 유형9(중재자 유형)는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에니어그램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성격유형으로 모든 성격유형의 특성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형9는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거의 없고, 희망과 기대를 최소화하여 거절, 좌절, 분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성격유형 중 가장 내면으로 움츠러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본인의 주장에 소극적이지만 내면으로는 고집스러운 저항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많다. 반면에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한다.

장형(본능형)인 유형1(개혁가 유형)은 원칙적이고 윤리적이며 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형이다. 유형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고 항상 절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으로 인하여 비판적이고 독선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있다. 아울러 모든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큼 남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으며. 강한 목적의식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타인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행동을 일관성 있고 강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시간계획을 잘 세운다. 또한 유형1은 책임감이 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많은 일을 완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는 성향이 있으며, 평상시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심각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가슴형(정서형)인 유형2(조력가 유형)는 정이 많고 자상한 유형으로 타인이 곤경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빠졌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향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좋고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를 잘하고 상냥하고 너그러우며 자기희생을 하는 성향이 있다. 유형2는 에너지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사랑이 많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관대하고 사려가 깊은 반면에 자만심으로 인하여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는 성향이 있고, 자기기만으로 인하여 감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긍정적인 감정으로 타인을 돌보며 자기희생으로 외형으로는 타인에게 사랑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사랑 받기를 바라는 성향도 있다.

가슴형(정서형)인 유형3(성취가 유형)은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원하며 많은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서를 잘 모르는 유형으로 자신의 감정이 성취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대치하며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자신의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다. 유형3은 인생의 가치를 성공 또는 실패로 판단하며 효율성을 중시하고 성공을 위해 희생도 감수하기도 하며, 외부로부터 보이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성취가치를 매기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상황판단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 진행하며, 실패를 할 경우에도 빨리 회복하여 다시 도전해 나가는 장점이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허영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있다.

가슴형(정서형)인 유형4(예술가 유형)는 자신이 타인과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형으로 낭만적이고 내향적이며, 스스로가 자신에게 진실하다고 믿고,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 사고할 때가 많다. 유형4는 자신의 개성과 결함을 잘 이해하지만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으며, 평범함을 싫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예술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승화시키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자신에게 보이기 위한 자아이미지를 만들고, 실제의 자아와 거리가 클 때 저항하며, 상상 속의 자아에 빠져있어 타인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머리형(인지형)인 유형5(사색가 유형)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고 있으며, 지식을 내면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 수준으로 탐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여 늘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고, 심할 경우 자기 파괴적 성향이 있기도 한다. 유형5는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시간,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해서는 탐욕적이지만 일반적인 물질, 명예에는 탐욕적이지 않은 성향이 있다. 아울러 항상 수집과 연습을 하며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독립적이며 개인적이며 육체적 활동이 서투른 경향이 있다.

머리형(인지형)인 유형6(충성가 유형)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유형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과 삶을 헤쳐 나갈 자신감의 결여로 주위로부터 버려지고 타인의 지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유형6은 불안과 불확실에 대한 방어책으로 강한 신념체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친절하나 내면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끊임없어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에 덜 불안해하고, 일정한 형식의 틀 안에서 일하는 것과 잘 정의된 가이드라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머리형(인지형)인 유형7(낙천가 유형)은 자신의 주의를 끄는 모든 것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쾌활한 유형으로 항상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즉흥적이며 여러 주제를 초기 단계에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유형7은 지루함을 싫어하여 언제나 흥미롭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을 바라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참을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반면에 주위의 관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의 즐거움에 만족하는 성향이 있고,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고 내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행동 하거나 중독에 빠지기도 하며, 자발적으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윤운성(2004)은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의 기능, 특징, 장점, 약점, 회피, 함정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에니어그램 유형 및 특징

성격유형		기능	특징	장점	약점	회피	함정
장형	8번 (지도자)	자기주장, 지도성	- 강력하고 지배하는 유형 - 단호함, 자기신념, 독재적 성격	적절한 힘	과도한 욕망	나약	정의
	9번 (중재자)	수용성, 수락성	- 태평하고 냉정한 유형 - 수용적, 수동적, 믿음직하고 억압적인 성격	행동으로 옮김	자기 망각	갈등	자기 비하
	1번 (개혁가)	합리성, 책임감	-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유형 - 원칙적, 규법적, 편협한 성격	침착	분노	성냄	완전
가슴형	2번 (조력가)	감정이입, 이타주의	- 보호적, 모성애적 유형 - 배려, 도움이 되며 소유욕이 강한 성격	겸손	교만	욕구	봉사
	3번 (성취가)	자기존중, 자기개발	- 성공지향적, 실용주의적 유형 - 자기확신, 자기도취적 성격	정직	기만	실패	효율
	4번 (예술가)	예술적, 창의성	- 수줍고 명상적인 유형 - 개인주의적이고 창조적이며 수줍은 성격	마음의 평안	선망	평범	독특
머리형	5번 (사색가)	독창적사고, 열린마음	- 지적이고 분석적인 유형 - 통찰적, 독창적, 공포심이 많은 성격	애착하지 않음	탐욕	공허	지식
	6번 (충성가)	동일시, 사회협력	- 의무적, 전통적 유형 - 호감형, 책임감, 의존적인 성격	절제	탐닉	고통	이상
	7번 (낙천가)	열정, 실용적	- 극도로 활동적, 개방적 유형 - 정열적, 완벽한, 과도하고 광적인 성격	절제	탐닉	고통	이상

2) 에니어그램의 활용

에니어그램의 목적은 자기발견과 자기 이해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인식함으로써 그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근본적인 성격 안에 묶여 반응하는 기제를 인식함으로써 자기인식과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아에 이르도록 하는 탐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30]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에니어그램도 심리적인 문제와 그와 관련된 인간 성격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니어그램의 활용은 교육 및 심리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어머니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대한 자기이해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니어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측면이 전환학습의 학습자가 세상을 인식하는 준거의 틀과 많은 관련이 있고, 성인학습에서 추구하는 전환학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3] 또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니어그램 중심 집단미술 치료는 성인여성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결혼 만족도 및 안정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34] 자신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개인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며[35],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삶의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종합하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인간의 기능을 본능, 정서, 인지로 구분하여 본능중심의 장형, 정서중심의 가슴형, 인지중심의 머리향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 유형은 세 가지씩 세분되어 9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되며, 에니어그램을 통한 개인의 성격유형에 대한 탐색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자기 인식, 자아성찰을 통한 인격 성장의 도구로서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30) 박기원(2005),「에니어그램Enneagram-상담과 지도」, 한국카운슬러협회, Vol.40(40), pp.108-109.
31) 이송이(2007),「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초한 어머니용 유아양육태도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3-76.
32) 이미희(2012), Op.cit., pp.45-48.
33) 지미선(2016),「성인학습에서의 전환학습과 에니어그램 관련성 연구」, 에니어그램 연구, Vol.13(2), p.99.
34) 이지명(2015),「에니어그램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53.
35) 손수경(2011),「에니어그램 9번 유형의 건강연속성과 내적경험」,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8-182.
36) 오명숙, 박현경, 윤운성(2013),「한국형에니어그램 단계교육이 심리적 안녕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Vol.10(1), pp.119-1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혈액형사상체질

1) 체질의 정의 및 역사

체질은 개개인이 가지는 신체적 특성으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체 내의 구조, 기능, 정신상태, 기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체질은 유전적 차이와 성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오장육부 기운의 강함과 약함이 다르고, 각각 장부 기운의 강약이 다름에 따라서 체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체질은 분류기준에 따라서 사상 또는 팔상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상의학은 인간의 체질적 특성과 장부의 허실에 따라 인간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체질에 따라 성격과 생리, 병리적 특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차별화된 약리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37] 동무 이제마(1838-1900년) 선생에 의해서 체계화한 사상체질의학은 오랜 연구와 임상치료 경험에 기초하여 집대성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 뿌리를 두고 있다.[38]

사상체질의학은 기질적인 특성과 성향인 성질재간(性質才幹), 용모와 말하는 기세인 용모사기(容貌詞氣), 체질별로 자주 겪는 체질병증(體質病症), 골격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형상인 체형기상(體刑氣像), 평상시의 마음과 추구하는 목표인 항심심욕(恒心心慾)을 종합하여 개인의 체질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으로 부르고 있다.[39]

태음인(太陰人)은 간의 기능이 강하고 폐의 기운이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며, 소음인(少陰人)은 신장의 기운이 강하고 비장의 기운이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고, 소양인(少陽人)은 비장의 기운이 강하고 신장의 기운이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며, 태양인(太陽人)은 폐의 기운이 강하고 간의 기운이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다. 개인의 체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크며, 체질 간에 우열 또는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개인이 올바른 생활을 할 경우 건강한 삶을 유지할

37) 이종우, 성갑선, 엄혜정(2009),「사상체질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비만 예측」, 한방비만학회지, Vol.9(2), p.22.
38) 조성익(2009),「운동선수들의 사상체질, 성격유형,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
39) 김봉현, 이세환, 조동욱(2008),「음성분석 정보 값 비교를 통한 사상체질 태음인의 분류」,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15(1), pp.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생활 또는 욕심으로 심화(心火)가 생길 시 타고난 체질의 특성과 장기의 기능에 편차가 생기게 되며 이는 곧 병증을 수반하게 된다.[40]

사상의학에 의한 각 체질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태음인의 경우 허리부위의 형세가 발달되어 서있는 자세가 굳건하지만 목덜미가 약한 체형으로, 보통 큰 키에 체격이 건실한 편이다. 소음인의 신체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작은 키에 비하여 엉덩이가 큰 편으로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였고,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으며 마르고 약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궁의 발육이 좋은 체형이다. 소음인의 외모는 태음인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소양인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슴부위가 발달되어 있지만 엉덩이 아래는 약한 체형으로 상체가 튼튼하고 하체가 가벼워 걸음걸이가 빠르고 몸가짐과 말하는 것이 민첩하여 경솔해 보일 수 있다. 태양인은 가슴 윗부분이 발달된 체형으로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큰 머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허리 아랫부분이 약한 편으로 엉덩이가 작고 다리가 위축되어 자세가 안정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뚜렷한 용모와 비후하지 않은 살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몸이 건강하지만 자궁의 발육이 나쁠 수도 있다. 사상의학에 의한 체질별 신체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40) 최경화(2008), Op.cit., p.18-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사상의학 체질별 신체적 특성

체질	신체적 특성
태음인	- 허리부분의 형세가 성장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함 - 목덜미의 기세가 약함 -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대개 살이 찜 - 눈매가 시원스럽고 눈가가 올라간 인상 - 손발이 크고 얼굴 윤곽이 뚜렷함
소음인	- 엉덩이가 크고 대체로 키가 작음 -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 - 체격이 작고 마르고 약한 편 - 용모가 잘 짜여져 있음
소양인	-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좁으며 어깨가 높음 -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음 - 눈이 크고 입이 작고 음성은 명랑함
태양인	- 목덜미가 굵고 허리가 가늠 - 다리가 위축되어 있어 자세가 안정되어 보이지 않음 - 원형으로 뚜렷하고 귀가 큼 - 여성의 경우 자궁의 발육이 나쁠 수 있음

사상의학은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하여 섭취하면 에너지가 강한 장기의 에너지는 조절되고 약한 장기는 에너지를 보완 받아 불균형 상태가 조절된다고 보고 있다.[41)42)] 개인의 병증을 치료 또는 개선 시키는 방법은 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약에 대한 처방은 물론 치료법, 섭생법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43)]

김지혜(2014)에 따르면 인산 김일훈(1909-1992) 선생은 동무 이제마 선생의 사상체질을 현대의 기초의학인 혈액형을 체질적으로 접목하여 개인을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예방의학으로 심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혈액형사상체질의학을 주창하였다.

사상체질과 혈액형을 접목한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서는 네 개의 장부(신, 간, 비,

41) 정동원(2009), 『혈액형사상 체질음식을 알면 병을 고친다』, 의성당. pp.13-16.
42) 주석원(2007), 『8체질의학의 원리』, 통나무.. pp.305-306.
43) 최경화(2007), Op.cit., p.1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폐)의 대소강약에 따라서 분류된 사상체질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선천적으로 타고난 혈액형체질의 유사점에 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혈액형 B형 소유자는 소음인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형 A형 소유자는 태음인 체질을 가지고 있고, 혈액형 O형 소유자는 소양인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형 AB형 소유자는 태양인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의하면 태음인(혈액형 A형)은 심폐기능이 약화될 경우 천식에 노출되고 몸의 저항력이 약해질 경우 폐결핵, 급성폐렴, 기관지염,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에 취약하다. 소음인(혈액형 B형)은 신장에 열이 차면 열이 오르고 두통이 나며 몸이 쑤시고 식은땀이 나며, 발병률이 높은 질병은 비장이 약하여 위장이 소화기능을 돕지 못할 경우 위염, 위궤양, 위장병, 위산과다, 급·만성 복통 설사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고 한다. 소양인(혈액형 O형)은 비장이 약화될 경우 발열, 오한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두통,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체질상 소화력은 왕성하나 신장의 기운이 취약하기 때문에 신장질환, 방광염, 요도염과 같은 질환에 취약하다. 태양인(혈액형 AB형)은 간 기능이 약화될 경우 혈액을 잘 생성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신경증세가 많이 나타난다.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을 음양사상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음성인 태음인(A형)과 소음인(B형)은 냉성체질로 분류하고, 양성인 소양인(O형)과 태양인(AB형)은 열성체질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상의학처럼 음성의 체질인 A형과 B형은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야 하는 체질로 음식, 기호식품 등을 섭취 시 양성 또는 열성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양성의 체질인 AB형과 O형은 외부로부터 음성 또는 냉성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44)]

2) 성격과 체질의 관계

사상의학에 의하면 사상체질별로 성격도 다르게 나타난다. 태음인의 경우 꾸준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참을성이 강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성취해내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행정적인 일에 능한 편이다. 태음인은 침착하고 끈기가 있어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하고 성취하려는 점이 있으며 인내심이 강하고, 변화를 싫어하며 관심의 범위가 자신의 일 외에는 그다지 넓지

44) 정동원(2009), Op.cit., pp.13-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않은 편이다.[45] 아울러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외골수로 고집이 세고 게으를 때는 한없이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믿음직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예의범절과 지구력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편이다.[46]

최병일(2002)에 따르면 소음인의 경우 세심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성향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성향이 있고, 대체로 유순하고 침착하며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아울러 머리가 총명한 편으로 빈틈이 없고, 사리분별이 분명하여 예의가 바르며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에 내성적으로 추진력이 약하며, 치밀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잠시 감정에 휩싸이긴 하지만 본성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47] 또한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여, 마음이 한번 상하면 잘 잊지 못하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48]

소양인의 경우 성질과 재간이 굳세고 날래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워하지 않으며,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하여 이해타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솔직담백하고 강하며 날렵한 성격의 소유자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성향이 있으며, 얼굴이나 행동으로 속 마음이 드러나고 행동이 돌진적인 면이 많은 편이다. 명랑하고 재치가 있으며 판단력이 빠른 편이지만 계획성이 적고 비판적이며 체념이 빠른 편이다.[49] 소양인은 또한 두뇌회전이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여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50], 외부의 칭찬을 좋아하지만 내면에서는 충실이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51] 아울러 활동적이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만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급한 성격이 단점이고, 외부 일에 분주하여 자신에 관한 일 또는 집안일 등에 소홀한 편이다.[52] 또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45) 이재원(2018),「심리유형이론(MBTI)과 사상체질에 관한 문헌 고찰」,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46) 황태연(2003),『사상체질과 리더십』, p.239.
47) 이재원(2018), Op.cit., pp.25-26,
48) 조성익(2009),「운동선수들의 사상체질, 성격유형,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2.
49) 황태홍(2006),「기업체 구성원들의 사상체질 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28.
50) 전경미(2004),「사상의학 체질과 리더십 스타일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51) 김태일(2010),「성인의 자아구조유형과 사상체질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52) 황태홍(2006), Op.cit., pp.26-2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반면에 거두어 정리하지 않는 성격으로 일이 잘 안되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다른 일을 벌이는 성격의 소유자로 시작은 잘 하나 마무리가 부족한 편이고, 지구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잘 느끼고 체념을 쉽게 하는 성향이 있다.[53]

태양인의 성격을 살펴보면 타인과 잘 소통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상대방을 어려워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편으로 상대방을 어려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아 소통을 잘하는 성향이 있다. 또한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격으로 되돌아 생각하지 않고 저돌적이며 후퇴를 모르지만 주위를 살피거나 타인의 관점이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영웅주의에 빠지는 성향이 있다. 아울러 두뇌회전이 빠른 편으로 대인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슬픔이 극도에 달할 경우 분노를 표출하기 쉽고 고민이 많은 편으로[54], 용맹하고 적극적이며 감수성이 과민하고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꼼꼼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55] 태양인은 긍정적으로 볼 경우 과단성 있는 지도자형이지만 부정적으로 볼 경우 독재자형이다.[56]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의하면 소음인(혈액형 B형)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가는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과 대할 때 겸손하며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나타내고 사교성이 강하다. 또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유연함의 소유자이다. 아울러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체력적으로 과로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 태음인(혈액형 A형)은 활동적이고 과묵한 반면에 은거하기를 좋아하여 게으르게 비치는 사람이 많다. 인내심이 강하고 슬픔과 기쁨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침착하고 꾸준하여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성취하는 경우가 많다. 소양인(혈액형 O형)은 성격이 활발하고 강직하여 행동은 돌진적이고 급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며 버럭 성을 내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매사에 세심하고 총명하여 일에 능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비탄에 빠지거나 성을 잘 내는 편이다. 드러나는 일을 좋아하고 실속 있게 마무리하는 것은 약한 편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를 잘하지만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태양인(혈액형 AB형)은 사교성이 강하고 주위를 살피거나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과단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우가 많다. 감정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경우

53) 김태일(2010), Op.cit.,p.24.
54) 황태연(2003), Op.cit., p.120.
55) 황태홍(2006), Op.cit., p.25.
56) 김태일(2010), Op.cit., p.2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많고 일이나 사업에 실패를 하여도 후회하지 않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태양인은 간 기능이 약화될 경우 혈액을 잘 생성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신경증세가 많이 나타난다.[57]

사상체질의학과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상체질별 성격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57) 정동원(2009), Op.cit., pp.13-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 사상체질별 성격적 특징

체질	성격적 특성
태음인 (A형)	- 꾸준하고 침착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성취해내려는 장점 -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행정적인 일에 능함 - 침착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이 강함 - 정직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믿음직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안일한 것을 좋아하는 편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관심의 범위가 자신의 일 외에는 그다지 넓지 않음 -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외골수이며 고집이 세고 게으를 때는 한없이 게으름 성향 - 보수적, 권위적이며 예의범절과 지구력이 강한 성격. -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욕심이 많고 고집이 셈
소음인 (B형)	- 세심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데 유리함 -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리 세밀하게 계획을 살피는 성향 - 유순하고 침착하며 사교적인 성격 - 머리가 총명한 편이며 빈틈이 없고 사리분별이 분명함 - 예의가 바르고 매사에 완벽을 추구함 - 내성적이고 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함 - 마음이 한번 상하면 잘 잊지 못하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 - 질투와 시기심이 많음. 개인주의가 강하여 남의 간섭을 싫어하며 이해타산에 얽매이기도 함.
소양인 (O형)	-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워하지 않음. -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으며 이해타산에 관심을 두지 않음 - 솔직, 담백하고 강하며 날렵한 성격.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얼굴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이 돌진적인 면이 많음. - 외부의 칭찬을 좋아하고 안에서 충실이 일하는 것에는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함 - 활동적이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경향 - 급한 성격이 단점이고 외부 일에 분주하여 자신에 관한 일 또는 집안일 등에 소홀한 편 - 일을 벌이려고 하고 거두어 정리하지 않으며 잘 안되면 그냥 방치해 버리고 다른 일을 벌이는 성격 - 시작은 잘 하나 마무리가 부족하며 지구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잘 느끼고 체념을 쉽게 함
태양인 (AB형)	- 적극적이며 상대방을 어려워하지 않고 소통을 잘함 - 저돌적이며 후퇴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영웅주의에 빠지는 성향 -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분노를 표출하기 쉽고 고민이 많은 편 - 용맹하고 적극적이며 감수성이 과민함.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꼼꼼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긍정적으로 보면 지도자형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독재자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종합하면 개인의 체질, 병증, 성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사상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색상선호도

1) 색의 개념

색(色)은 빛이 스펙트럼으로 구별되어 지각되는 광학적 현상이다. 인간의 눈이 인식하는 빛은 방사되는 많은 전자파 중에서 380nm~780nm의 범위의 파장을 가진 전자파로 가시광선(可視光線)이라고 부른다.[58]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경우 파장이 짧은 순서인 남보라, 파랑, 청록, 초록, 연두, 노랑, 귤색, 주황색, 빨강 순서로 배열되며 무지개색을 이루며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색은 스펙트럼의 장단에 의해서 빨강(red, 赤), 주황(yellow, 朱), 노랑(yellow, 黃), 초록(green, 綠), 파랑(blue, 靑), 남색(indigo, 藍), 보라(violet, 紫)등으로 구별되는 색상(色相, hue, color),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明度, value, brightness), 색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채도(彩度, saturation)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색은 시감각적 현상으로 보면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인 광원색, 물체에 반사 또는 흡수되어 보이는 빛의 파장인 물체색, 물체를 투과하여 보이는 빛의 파장(투과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59] 물체에 반사 또는 흡수되어 보이는 빛의 파장인 물체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된다. 무채색(無彩色)은 명도(明度)는 있으나 하양, 검정, 회색과 같이 채도(彩度)가 없는 색들을 통틀어 부른 말이다. 물체가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고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작고 흡수하는 정도가 클수록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나타낸다.

인간의 경우 광원으로부터 나오거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은 사람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고, 이 빛이 망막에 상으로 맺히며, 망막에 있는 시세포 중 색을 감지하는 원뿔 세포가 빛의 정보를 시신경을 통하여 대뇌에 전달한다. 이와 같이 색을

58) 김학성(2001),『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p.11.
59) 이주희(2005),「현대 공간의 색채언어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눈으로 지각하기 위해선 뇌의 작용이 필요하고,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 중 3종류의 원뿔세포가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인식된 정보는 대뇌로 전달된 후 송과선이 물체의 색을 인식한다.[60]

대뇌에 전달된 색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경험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된다. 색채의 지각은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생리적인 현상인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이며[61], 다르게 지각된 색 정보는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2] 이러한 과정에서 세라토닌, 멜라토닌 등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조절되고 개인이 안정감, 평화, 활기 등을 느끼게 한다.[63]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감지하는 색채는 물체가 빛을 흡수거나 반사하여 나타내는 표면색과 이를 개인이 대뇌를 통하여 지각하는 지각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각색은 인간이 경험하는 총체적 시각경험에 속하는 것으로 색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 대비, 동화, 진출, 후퇴 등과 관련이 있고, 색채 지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인간이 색을 통해 지각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64]

이와 같이 색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 미술, 심리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색에 대한 접근법 또한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색채심리는 심리학의 범주를 넘어서 건축, 디자인, 예술, 생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계를 맺어 왔다. 문은배(2011)는 색채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고찰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60) 김경숙(2005),「색채명상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61) 김정희(2010), Op.cit.,. p. 14.
62) 김용숙, 박영로 (2007), Op.cit., p.223.
63) 박경준(2008),「꽃과 색 및 형태분석이 인체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삼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64) 김지현(2014). Op.cit., p.5-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색채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문은배, 2011, 재인용).

구분	내용
언어적 접근	- 색 이름 체계를 개발, 연구 - 언어에 담긴 정서와 색채의 연관관계, 각종 색채 관련 어원 연구
화학적 접근	- 색을 표현하는 안료, 염료, 잉크 등의 화학적인 분석과 분자구조색의 정착, 색료의 합성법, 성질에 따른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 - 물질 자체에 대한 연구
생리적 접근	- 눈에서 대뇌에 이르는 신경계통의 광화학적 활동을 규명하는 방법 - 신경조직, 망막, 시신경, 홍채 등 몸의 조직과 관련된 연구
물리학적 접근	- 물리적, 광학적으로 광원, 반사광, 투과광 등의 에너지 분포 양상 및 자극 정도를 규명하는 방법 - 측정 및 관리기기 중심의 기능적인 연구
심리적 접근	- 개인의 주관적인 감성 작용, 과거의 경험에 의한 기억, 연상작용, 색채 반응에 대한 활동과정을 규명 - 언어학적 연구를 포함
심리물리적 접근	- 색채의 심리적 반응과 관련된 빛의 물리량과 그에 대한 감각을 연구 - 자극과 반응의 관계 측색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
미학적 접근	- 디자인과 예술의 주체나 요소의 표현도구로 색채를 보는 관점 - 색채의 감성적인 내용에 접근하여 조형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음
환경건축적 접근	- 환경 색채 연구를 중심으로 함 - 건축의 색채 디자인, 인공적인 환경 건설 시 자연 색채 연구를 중심으로 함
컴퓨터공학적 접근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자기기의 색채재현 및 표현에 관한 연구
민속적 접근	- 문화와 관련된 지역 색, 지리적 풍토색, 지역 전통색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색은 고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등에 의해 인간의 주관적인 감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색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는 시각적 효과와 같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색의 자극을 통해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색의 심리적 영향은 색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색에 대한 인상, 조화 등을 통해 감성적인 면을 포함한 미적 반응과 공감각에 의한 생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65]

인간이 지각하는 색에는 온도감, 운동감, 중량감, 경연감, 주목성, 명시도, 판독성, 기억색, 강약감 등이 있으며, 색을 통한 연상은 개인의 환경, 경험, 기억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이나 연령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개인의 기호,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색에 대한 감정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66] 김지현(2014)은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감정 변화를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색의 3속성에 따른 감정 변화

속성	분류	감정 상태
색상	따뜻함	즐거움, 기쁨, 뜨거워짐, 흥분
	보통	평온, 평정
	차가움	냉랭, 슬픔, 냉정
명도	상	경쾌함
	중	낙착
	하	무거움
채도	상	긴장감
	중	가라앉음
	하	편안함

65) 한정원(2012), Oc.cit., p.10.
66) 김정희(2010), Op.cit., p.1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색상선호 이론

색채심리학에서는 선호하는 색과 그 사람의 성격 및 정신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Luscher(1987)의 색채심리검사는 선호하는 색상과 성격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다. 러셔의 색채심리검사는 빨강, 오렌지, 밝은 노랑, 파랑, 초록, 어두운 파랑, 보라, 갈색, 회색, 검정을 피험자에게 보여준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좋아하는 순서에 따라서 여덟 가지 색을 나열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피험자가 제일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을 기반으로 성격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색채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 연령, 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지리적 특성,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이 지각하는 색에 대한 물리적, 심미적, 심리적 인상 또한 개인 및 집단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67] 개인의 색상선호는 내외적인 영향을 받고 가변적이지만 대상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68] 또한 개인의 색상선호는 개인의 상징적 언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색으로만 볼 경우에는 색을 지각하고 선호하는 개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69]

하워드와 도로시(2003)에 따르면 개인이 선호하는 색상별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빨강색은 정신적, 정서적 특징 중 긍정적인 특징은 동기부여, 활동성, 의지력, 자극, 원초적 에너지, 개척자 정신, 강인함, 관대함, 육체적 사랑, 욕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정적인 특징은 거침, 격한 분노, 포악함, 무자비함, 원망, 혐오감 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황색은 정신적, 정서적 특징 중 긍정적인 특징은 사교적, 건설적, 열정, 활기, 경쾌함, 창의력, 기쁨, 자신감, 용기, 긍정적 태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정적인 특징은 과시 성향, 우울증, 슬픔, 거만함 등을 나타내고 있다. 노란색의 경우 긍정적인 특징은 태양의 색으로 희망, 화사함, 명랑, 밝음, 쾌활함, 긍정적, 지식, 지혜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정적인 특징은 속임수, 기만, 지배욕, 계산적인 행동, 복수심, 정신적 좌절 등을 나타내고 있다. 초록색의 긍정적인 특징은 나눔, 적응력, 관용, 협력, 이해력, 자유 등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특징으로는 비참함, 무관심, 냉담함, 불안정, 판단력 부족, 질투, 시샘, 퇴보 등을 나타낸다. 청록색의 긍정적인 특징은 지속적인 활력, 명확한 표현,

67) 이은화(2018), Op.cit.. p.26.
68) 권미란(2012). Op.cit.., p.8.
69) 문은배(2011), Op.cit., p.25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복, 주의 깊음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특징은 분리, 미성숙, 공허감, 고립 등을 나타낸다. 파란색의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영혼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며 열망, 고요함, 헌신, 신뢰, 성실함, 평화, 이완의 느낌 등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특징은 의심, 불신, 요령, 게으름, 나태함, 우울, 무기력 등을 나타낸다. 보라색의 긍정적인 특징은 품위, 고상함, 자존심, 예술적 기교, 끈기 등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특징은 고립, 붕괴, 자만심, 오만함, 무례함 등을 나타낸다. 마젠타(심홍색)은 모든 색 중 가장 신비하고 고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색으로, 긍정적인 특징은 온화함, 따뜻함, 보살핌, 무조건적 사랑, 보호 본능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정적인 특징은 지나친 열광, 거만함, 지배욕, 고립적인 경향, 자만심 등을 나타낸다. 색상별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색상별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

색상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빨강	동기부여, 활동성, 의지력, 자극, 원초적 에너지, 개척자 정신, 강인함, 관대함, 육체적 사랑 등	거침, 격한 분노, 포악함, 무자비함, 원망, 혐오감 등
주황	사교적, 건설적, 열정, 활기, 경쾌함, 창의력, 기쁨, 자신감, 용기, 긍정적 태도 등	과시 성향, 우울증, 슬픔, 거만함 등
노랑	희망, 화사함, 명랑, 밝음, 쾌활함, 긍정적, 지식, 지혜 등	속임수, 기만, 지배욕, 계산적인 행동, 복수심, 정신적 좌절 등
초록	나눔, 적응력, 관용, 협력, 이해력, 자유 등	비참함, 무관심, 냉담함, 불안정, 판단력 부족, 질투, 시샘, 퇴보 등
청록	지속적인 활력, 명확한 표현, 행복, 주의 깊음 등	분리, 미성숙, 공허감, 고립 등
파랑	열망, 고요함, 헌신, 신뢰, 성실함, 평화, 이완의 느낌 등	의심, 불신, 요령, 게으름, 나태함, 우울, 무기력 등
보라	품위, 고상함, 자존심, 예술적 기교, 끈기 등	고립, 붕괴, 자만심, 오만함, 무례함 등
마젠타 (심홍색)	온화함, 따뜻함, 보살핌, 무조건적 사랑, 보호 본능 등	지나친 열광, 거만함, 지배욕, 고립적인 경향, 자만심 등

색에 대한 실용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특히 자아발견과 개인에 대한 인식을 위한 도구로서, 하워드와 도로시(2003)는 CRR(color reflection reading)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CRR 분석법은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청록색, 보라색, 마젠타(심홍색)의 8가지 색 중 선호하는 색 3개를 고르게 한 후, 그 순서와 색이 의미하는 것을 토대로 기본적인 성격, 현재의 상태, 미래의 목표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피험자가 택하는 첫 번째 색은 개인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색으로 기본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양식을 반영하고, 개인의 진실된 자아 모습을 반영한다. 피험자가 택하는 두 번째 색은 피험자가 처해있는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색으로 깊은 무의식적 욕구나 결핍 또는 약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지금 즉시 수용해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색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반영한다. 피험자가 택하는 세 번째 색은 피험자의 목표를 의미하는 색으로 개인의 내면적인 소망, 비전, 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이 밟아야 하는 단계를 지시해주고 있으며, 개인이 새롭고 신선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CRR 분석법에서 세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성공을 위한 노력이 진정한 자아가 아닌 현재의 상태와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색이 제시하는 도전을 극복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70] CRR 분석법에 의한 선호색상 선택 순서에 따른 색상의 의미를 정리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선호색상 선택 순서에 따른 색상의 의미

색상	첫 번째 선택 의미	두 번째 선택 의미	세 번째 선택 의미
빨강	사교력과 지도력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고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어서 남을 따른 것보다 앞서서 이끄는 성격이다.	맹렬한 에너지를 조절하여 힘이 고갈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배적인 성향, 공격성, 강한 성적 자극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랑, 애정, 우정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공상에 빠지거나 행동을 미루지 말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회를 움켜잡아야 할 때이다. 지금의 자신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황	경쾌하고 낙천적이며 활기차고 행복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솔직한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를 즐긴다.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고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다.	내적인 자아가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몸과 마음 모두 평온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잦아 느긋하고 편안한 태도를 터득해야 한다.	파괴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깊은 생각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좀 더 용감하고 자신 있게 앞으로 발을 내딛고 위험을 감수하고 평소의 행동 양식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찾아야 한다.
노랑	이성, 논리,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인생을 바라본다. 분석과 계산이 뛰어나지만 남을 지배하거나 남보다 우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신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자아까지 생각해야한다. 환상, 꿈과 같은 개념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와 시대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정신을 확장하고 개방하기 위한 특별훈련이 필요하다. 선택한 일은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중요한 일은 상세하고 철저

70) 진승관(201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UI 특성에 따른 힐링 색채에 관한 연구 :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2-4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유창한 표현력을 자랑한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지적인 이해력을 유익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초록	양쪽의 균형을 추구하여 어떤 종류의 극단으로 흐르지 않는다. 지배적이지도 복종적이지도 않고 외향적이지도 내향적이지도 않다. 조화, 부드러움, 온화함, 진지함을 발산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	감정적인 상처를 달래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남에게 쉽게 털어 놓지 못하는 편이며 내적인 감정을 억누르려는 경향이 있다. 움츠러들고 망설여질 때 마다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통해 상실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기민함도 필요하다.
청록	신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냉철하게 대처한다. 결단력이 빠르고 행동은 확실하다. 통찰력과 능력이 뛰어나다.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서 벗어나 내적으로 침잠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몸, 마음, 감정을 정화하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닥치는 상황을 모두 도전으로 간주한다. 변화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행동이 개인적인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변화를 환영한다.
파랑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하며 평온하다.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며 진솔하고, 믿음직하고 충실하다. 위협감을 주지 않은 채 고요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한다. 너무 자신에게 몰입하는 성향으로 혼자 고립되기도 한다.	침묵과 지식이 강점이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너무 강력한 침묵을 깨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좀 더 많이 표현하며 말하는 습관과 자기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	영적인 생각, 명상 등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삶의 순리에 더 신뢰를 보내야 하고 융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라	영적인 의식과 인식을 지니고 있고 신비로움과 정신력의 세계에 관심이 많다. 현실에 잘 적응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자 하고 위엄과 고상함을 갖추고 있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감 부족에 시달리기도 한다.	여러 가지를 통합하여 짜맞추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자긍심이 부족하여 정서불안에 시달린다. 주위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끈기를 발휘해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	타고난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질을 나눠주고 싶어한다. 신념과 직감, 지혜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젠타 (심홍색)	친절하고 완화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 타인에게 애정과 따뜻함, 사랑과 연민을 보낼 줄 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성숙함을 지녔고 다른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애써 보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시적인 자아에 사로잡히거나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상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거만하고 지배적인 천성이 드러나게 된다. 내면의 부드러운 부분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개인이 선호하는 색상은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결정 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비슷한 기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의 변화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색상은 소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스마트폰의 경우엔 제품 색상의 미세한 채도와 명도의 차이로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제품 구매에서 색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1)]

브랜드와 색채의 상관성에 따른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는 색을 포함한 기타 디자인들의 전체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기업이 의도한 특정 색채에 대한 이미지가 브랜드에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이며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색상선호도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직종에 접목된 사례도 존재한다. 컬러테라피를 이용한 네일 서비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컬러테라피를 이용한 네일 서비스 제공 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3)] 또한 퍼스널 컬러 시스템에 따라 피부유형을 분석하여 피부에 맞는 색채의 네일 컬러링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만족도와 네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4)]

유아의 선호색상과 정서지능, 창의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마젠타 색상을 선

71) 김지현 (2014), Op.cit., p.9
72) 조예선(2007),「브랜드와 색채의 상관성에 따른 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0-91.
73) 차선형(2017),「컬러테라피를 이용한 네일 서비스가 심리적 건강이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43.
74) 유선진(2006),「퍼스널 컬러 시스템에 따른 네일 컬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5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호하는 유아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나고, 청록을 선호하는 유아의 정서 표현성은 낮게 나타나며, 또한 빨강과 청록의 색상을 선호하는 유아가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탈규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힐링의 색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뇌의 평안함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파랑이 힐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색상으로 선호되고, 자료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검정, 회색, 흰색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76]

종합하면 인간이 지각하는 색은 개인의 환경적, 유전적, 기질적, 성격, 심리 상태 등에 따라서 색채지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색상은 순서에 따라서 개인의 본질 상태, 현재의 상태, 미래 목표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개인의 선호색상은 개인 소비하는 상품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색상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소비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절 색상선호도, 성격, 체질의 관계

개인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개인이 선호하는 색의 사용은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 내재화된 색채와 외재화된 색채의 다양성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연관이 있으며[77], 무의식적으로 선호되는 색의 선택과 사용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 및 정서를 상징하는 마음의 언어로 개인 간에 상호 소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78]

성격과 선호색상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성격유형검사 중 하나인 DISC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강한 자아와 목표 지향적이며 책임감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유형의 사람은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강한 톤의 장파장 색상을 선호하고, 낙관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열정이 넘치는 성격유형의 경우 파

75) 이수진(2020),「유아의 색채선호에 따른 정서지능과 창의성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0-70.
76) 진승관(2013), Op.cit., pp.74-81.
77) 서복희, 이근매(2013),「색채심리의 유효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Vol.9(1), p.143.
78) 박윤희, 최은영(2008),「알코올중독자의 능동적 심상을 통한 자유화 색채특성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pp.107-10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랑, 남색과 같은 강한 톤의 단파장 색상을 선호하고, 끈기가 강하고 안정적이며 충성심이 강한 성격유형은 자주, 청록과 같은 강한 톤의 색상 및 검정을 선호하며,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유형은 약한 톤의 회색과 약한 톤의 자주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9] 성격유형검사 중 다른 하나인 MBTI 성격유형과 색채 선호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의 경우 푸른색 계통의 한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연두, 초록, 갈색, 분홍 등의 중성 계열 색의 선호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인 성격 소유자의 경우 한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무채색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유형 사이의 큰 차이가 없이 한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0]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심리적 역동성과 연관 색의 관계는 무지개 색처럼 여러 가지이다. 윤혜란(2017)에 따르면 본능 중심의 장유형은 행동지향적인 민첩한 모습과 의지적인 표정 등이 특징적으로 행동지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색채론적으로 빨간색은 생명력의 에너지를 의미하고 혁명, 변화, 야망 등의 진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유형과 빨간색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서 중심의 가슴유형은 감성적이며 관계지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적 컬러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에너지인 노란색과 연관이 있으며, 인지 중심의 머리유형은 사고의 기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정보 수집, 분류, 계획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지향적인 에너지는 충성도와 신뢰도를 나타내는 색인 파란색과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오로라(aura) 색상의 관계를 연구한 이영좌(2017)에 의하면 본능 중심의 장유형은 추진력을 의미하는 빨강, 본능적인 충동과 감정을 억압하는 파랑, 외부와의 경계를 강화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청록색과 성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서 중심의 가슴유형은 사람들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연두, 핑크, 성취력과 타인의 관심을 받는 골드,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는 보라색과 유사한 성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 중심의 머리유형은 개념과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는 경향의 인디고색, 삶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 두고 의존하는 경향의 그린색, 외향적으로 보이나 내면은 두려움으로 차있는 오렌지색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색채인지도 및 색채선호도를

79) 정현선, 김예원(2018), Op.cit., pp. 519-520.
80) 한정아(2011), Op.cit., pp.650-65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한 서유리(201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유형, 가슴유형, 머리유형 모두 빨간색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색채선호도에 있어서 본능 중심의 장유형은 녹색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 중심의 가슴유형은 빨간색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으며, 사고중심의 머리유형은 녹색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김유정(2005)에 따르면 본능 중심의 장유형은 청색계열의 파랑색을 가장 선호하고, 정서 중심의 가슴유형은 중성계열의 보라색을 선호하며, 사고 중심의 머리유형은 황색계열의 노랑, 초록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선호색상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선호색상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9>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연관 색상 연구 정리표

	장유형	가슴유형	머리유형
김유정(2005)	파랑	보라	노랑, 초록
서유리(2013)	녹색	빨간색	녹색
윤혜란(2017)	빨간색	노랑	파란색
이영좌(2017)	빨강, 파랑, 청록	연두, 핑크, 골드, 보라	남색, 초록, 주황

혈액형이 개인의 성격특성 및 기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 있는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예를 들어, 혈액형과 호르몬 분비 특성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82)]와 혈액형과 뇌신경 생리학적인 뇌파 특성의 관계를 토대로 혈액형과 스트레스 저항능력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83)]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의학에서는 혈액형에 따라서 체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4)] 사상체질과 성격, 기질간의

81) 김유정(2006),「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선호하는 향과 색에 대한 분석」, 한국에니어그램학회 에니어그램연구, Vol.2(1), p.61.
82) Hobgood D. (2011). Personality traits of aggression-submissiveness and perfectionism associate with ABO blood groups through catecholamine activities. Med. Hypotheses, 77(2), 294-300.
83) Kim C., Yi S.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on emotional character and antistress of adults.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12(6), 2554-2560.
84) 정동원(2009), Op.cit., pp.13-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를 연구한 강문수(2014)에 의하면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사교적이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활동적이며,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하여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활동을 하며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소음인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성향이고 태음인은 소양인, 소음인에 비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85]

운동선수의 성격과 사상체질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외향형, 직관형 유형은 소양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내향형, 감각형 유형은 소음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86] 사상체질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관계에 대한 연구(허선희, 윤천성, 2014) 결과를 살펴보면, 힘의 중심에 의한 구분의 경우, 감정중심의 성격 유형(2번, 3번, 4번 유형)은 태양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행동방식에 의한 구분의 경우, 순응형(2번, 6번, 7번 유형)은 소양인의 비율이 높고, 후퇴형(4번, 5번, 9번 유형)은 소음인의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상체질과 성격 유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87]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성격유형과 색상선호도는 관계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상체질과 성격유형 또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격유형, 체질, 색상선호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85) 강문수(2014),「성격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한 사상체질간 성격 및 인지 특성 연구」, 우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5-31.
86) 이광옥(2007),「운동선수들의 사상체질과 MBTI 성격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3-95.
87) 허선희, 윤천성(2014),「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행동방식과 사상체질의 상관관계 연구」, 뷰티산업연구, Vol.8(1), p.5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 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패션뷰티 분야의 20대~60대의 전국 피부 관리실 성인 원장 및 고객 201명을 조사하였다.

제2절 측정 도구

대한민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 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성격은 에니어그램 설문지를 이용하여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조사하였다. 에니어그램 설문지는 윤운성(2001)이 개발한 설문지로 9가지 세부 성격 유형에 대한 8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성격 유형을 본능형(장형), 정서형(가슴형), 인지형(머리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체질은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에 기반 하여 응답자의 혈액형을 물어보았다.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에 의하면 B형 혈액형인 경우 소음인, A형인 경우 태음인, O형인 경우 소양인, AB형인 경우 태양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에 기반 하여 응답자의 혈액을 조사하였다.

색상선호도는 차크라의 색을 상징하는 7가지 색을 제시하고 선호하는 세 가지 색을 선택하게 하였다. 체질은 장부의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장부의 건강은 인체 에너지의 중심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7개의 차크라와 관련이 있고, 각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또는 ‘원형’을 의미하며 영적 에너지와 신체적 기능이 통합된 인간 정신의 중심부이다. 주요한 차크라는 척추를 중심으로 7가지가 있으며 각 차크라의 특유의 위치 및 상징이 있다. 첫 번째 물라다라 차크라는 미골신경총에 위치하며 색상은 붉은색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스와디스타나 차크라는 생식기뿌리에 위치하며 주황색과 관련이 있다. 배꼽부위에 위치하는 마니푸라 차크라는 노랑색, 심장에 위치한 네 번째 차크라 아나하타는 초록색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 비슈다 차크라는 목 뒤에 위치하며 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란색을 의미하며, 여섯 번째 아즈나 차크라는 미간 뒤 뇌하수체에 위치하고 남색으로 표현된다. 일곱 번째 사하스라라 차크라는 백회에 위치하며 보라색의 에너지를 의미한다.[88)89)] 고유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상과 관련이 있다. CRR 분석법에서 제시하는 8가지 색상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마젠타로 제시하고 있지만 초록과 청록은 색채학적으로 초록(green)으로 볼 수 있으며, 하워드와 도로시(2003)가 말하는 보라색과 마젠타색은 색채학적으로 남색(indigo)과 보라(violet)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차크라를 상징하는 빨강(red), 주황(orange), 노랑(yellow), 초록(green), 파랑(blue), 남색(indigo), 보라(violet) 색상 카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선호하는 세 가지 색상의 순서와 색상을 조사하였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에 대한 독립성 검정(independence test)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R개의 범주로 구성된 행 속성변수와 C개의 범주로 구성된 열 속성변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빈도수를 정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할표(分割表: contingency table)를 얻게 된다.

88) 장은주(2016), 차크라 각성과 아로마테라피의 파동에너지적 관계연구,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32.
89) 정문성(2020), 차크라 힐링에 관한 정신신경면역학적 고찰,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0-6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0>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에 대한 분할표

열 속성변수 / 행 속성변수	열 범주 1	· · ·	열 범주 C	행 범주 합계
행 범주 1	n_{11}	· · ·	n_{1C}	n_{1+}
· · ·	· · ·	· · ·	· · ·	· · ·
행 범주 R	n_{R1}	· · ·	n_{RC}	n_{R+}
열 범주 합계	n_{+1}	· · ·	n_{+C}	$n_{++}=n$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분할표에서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는 서로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 행 범주 r과 열 범주 c에 해당되는 상대 빈도(또는 확률) $\frac{n_{rc}}{n}$(또는 p_{rc}는 행 범주 r에 해당되는 상대 빈도(또는 확률) $\frac{n_{r+}}{n}$(또는 p_{r+}는)와 열 범주 c에 해당되는 상대 빈도(또는 확률) $\frac{n_{+c}}{n}$(또는 p_{+c}는)의 곱과 같게 된다. 즉, $H_0 : \frac{n_{rc}}{n} = \frac{n_{r+}}{n} \times \frac{n_{+c}}{n}$ 또는 $H_0 : p_{rc} = p_{r+} \times p_{+c}$이다.

행 범주 i과 열 범주 j에 해당되는 관측 빈도를 O_{ij}로 표기하고, 기대 빈도를 E_{ij}로 표기를 하자.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 검정통계량

$$\chi_0^2 = \sum_{i=1}^{R}\sum_{j=1}^{C}\frac{(O_{ij}-E_{ij})^2}{E_{ij}}$$

은 전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자유도가 $(R-1)(C-1)$인 카이-제곱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또한 유의수준 $100\times\alpha\%$에 대한 검정 통계량의 임계값은 $\chi^2_{(r-1)(c-1):\alpha}$ 이 된다. 즉, $\chi_0^2 \geq \chi^2_{(r-1)(c-1):\alpha}$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되어 행 속성변수와 열 속성변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사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후 작업은 일반적으로 관측 빈도(O_{ij})와 기대 빈도(E_{ij})의 차인 잔차 $R_{ij} = O_{ij} - E_{ij}$을 이용하며, 잔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관측 빈도가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기대 빈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 범주 i와 열 범주 j에 해당되는 셀의 관측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후 작업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수정 잔차는 다음과 같다.

$$\frac{R_{ij}}{SE(R_{ij})}$$

여기서, $SE(R_{ij})$는 잔차(R_{ij})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수정 잔차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근사적으로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유의수준 5%일 경우 수정 잔차의 임계값은 ± 1.96이고, 10%일 경우 ± 1.645가 된다.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대한민국 피부관리실 원장 및 고객 20대~60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01명을 조사하였고, 이 중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가 없는 대상을 제외된 195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불성실 응답률은 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실하게 응답에 응한 195명의 연령대 및 혈액형에 대한 분포도는 <표 11>과 같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연구대상의 연령대 및 혈액형 분포도

구분	세부 구분	빈도	상대 비율(%)
연령	20대	33	16.9
	30대	23	11.8
	40대	60	30.8
	50대	62	31.8
	60대 이상	17	8.7
혈액형	A 형	85	43.6
	B 형	47	24.1
	AB 형	20	10.3
	O 형	43	22.1

<표 11>을 살펴보면, 5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비율이 각각 31.8%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과 30대 여성의 비율이 각각 8.7%와 11.8%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 중 연령이 40~59세인 여성의 비율이 62.6%로 주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혈액형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태음인으로 분류되는 A형의 비율(43.6%)이 가장 높고, 태양인으로 분류되는 AB형의 비율(10.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연령대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이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 0.645로 일반적인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연령대와 성격유형은 독립적이라는 것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성격유형의 분포도가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2>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성격유형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성격유형 / 연령	본능형	정서형	인지형	합계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20대	19 21.8 (57.6%) (14.7%) -1.1	10 7.3 (30.3%) (23.3%) 1.3	4 3.9 (12.1%) (17.4%) 0.1	33 33.0 (100%) (16.9%)	5.41 (.645)
30대	17 15.2 (73.9%) (13.2%) 0.8	5 5.1 (21.7%) (11.6%) 0.0	1 2.7 (4.3%) (4.3%) -1.2	23 23.0 (100%) (11.8%)	
40대	36 39.7 (60.0%) (27.9%) -1.2	15 13.2 (25.0%) (34.9%) 0.7	9 7.1 (15.0%) (39.1%) 0.9	60 60.0 (100%) (30.8%)	
50대	44 41.0 (71.0%) (34.1%) 1.0	11 13.7 (17.7%) (25.6%) -1.0	7 7.3 (11.3%) (30.4%) -0.1	62 62.0 (100%) (31.8%)	
60대 이상	13 11.2 (76.5%) (10.1%) 0.9	2 3.7 (11.8%) (4.7%) -1.1	2 2.0 (11.8%) (8.7%) 0.0	17 17.0 (100%) (8.7%)	
합계	129 129.0 (66.2%) (100%)	43 43.0 (22.1%) (100%)	23 23.0 (11.8%) (100%)	195 195.0 (100%) (100%)	

연령대에 따른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에 의한 체질유형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13>와 같다. <표 13>에 의하면 연령대와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이 독립적이라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 .05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 작업을 통하여 연령대와 체질유형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3>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체질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체질 / 연령	태음인 (A형)	소음인 (B형)	태양인 (AB형)	소양인 (O형)	합계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20대	15 14.4 (45.5%) (17.6%) 0.2	12 8.0 (36.4%) (25.5%) 1.8	3 3.4 (9.1%) (15.0%) -0.2	3 7.3 (9.1%) (7.0%) -2.0	33 33.0 (100%) (16.9%)	20.05 (.050)
30대	11 10.0 (47.8%) (12.9%) 0.4	4 5.5 (17.4%) (8.5%) -0.8	2 2.4 (8.7%) (10.0%) -0.3	6 5.1 (26.1%) (14.0%) 0.5	23 23.0 (100%) (11.8%)	
40대	30 26.2 (50.0%) (35.3%) 1.2	13 14.5 (21.7%) (27.7%) -0.5	4 6.2 (6.7%) (20.0%) -1.1	13 13.2 (21.7%) (30.2%) -0.1	60 60.0 (100%) (30.8%)	
50대	25 27.0 (40.3%) (29.4%) -0.6	17 14.9 (27.4%) (36.2%) 0.7	5 6.4 (8.1%) (25.0%) -0.7	15 13.7 (24.2%) (34.9%) 0.5	62 62.0 (100%) (31.8%)	
60대 이상	4 7.4 (23.5%) (4.7%) -1.7	1 4.1 (5.9%) (2.1%) -1.8	6 1.7 (35.3%) (30.0%) 3.6	6 3.7 (35.3%) (14.0%) 1.4	17 17.0 (100%) (8.7%)	
합계	85 85.0 (43.6%) (100%)	47 47.0 (24.1%) (100%)	20 20.0 (10.3%) (100%)	43 43.0 (22.1%) (100%)	195 195.0 (100%) (100%)	

<표 13>에서 유의수준 10%에 해당되는 수정 잔차의 임계값 ± 1.645를 벗어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20대의 경우 소음인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소양인은 상대적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태양인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태음인과 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30대, 40대, 50대의 경우 체질유형의 분포도가 전체 성인여성의 분포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첫 번째 선호색상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연령대와 첫 번째 선호색상이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 .016으로 일반적인 유의수준 .05보다 매우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 작업을 통하여 연령대와 첫 번째 선호색상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4>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연령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 확률)
20대	5 6.4 (15.2%) (13.2%) -0.7	1 1.9 (3.0%) (9.1%) -0.7	6 5.6 (18.2%) (18.2%) 0.2	3 7.3 (9.1%) (7.0%) -2.0	5 4.1 (15.2%) (20.8%) 0.5	5 2.2 (15.2%) (38.5%) 2.1	8 5.6 (24.2%) (24.2%) 1.2	33 33.0 (100%) (16.9%)	35.52 (.016)
30대	8 4.5 (34.8%) (21.1%) 2.0	1 1.3 (4.3%) (9.1%) -0.3	5 3.9 (21.7%) (15.2%) 0.7	0 5.1 (0.0%) (0.0%) -2.7	5 2.8 (21.7%) (20.8%) 1.5	2 1.5 (8.7%) (15.4%) 0.4	2 3.9 (8.7%) (6.1%) -1.1	23 23.0 (100%) (11.8%)	
40대	13 11.7 (21.7%) (34.2%) 0.5	3 3.4 (5.0%) (27.3%) -0.3	10 10.2 (16.7%) (30.3%) -0.1	14 13.2 (23.3%) (32.6%) 0.3	5 7.4 (8.3%) (20.8%) -1.1	3 4.0 (5.0%) (23.1%) -0.6	12 10.2 (20.0%) (36.4%) 0.8	60 60.0 (100%) (30.8%)	
50대	9 12.1 (14.5%) (23.7%) -1.2	6 3.5 (9.7%) (54.5%) 1.7	8 10.5 (12.9%) (24.2%) -1.0	23 13.7 (37.1%) (53.5%) 3.5	5 7.6 (8.1%) (20.8%) -1.2	3 4.1 (4.8%) (23.1%) -0.7	8 10.5 (12.9%) (24.2%) -1.0	62 62.0 (100%) (31.8%)	
60대 이상	3 3.3 (17.6%) (7.9%) -0.2	0 1.0 (0.0%) (0.0%) -1.1	4 2.9 (23.5%) (12.1%) 0.8	3 3.7 (17.6%) (7.0%) -0.5	4 2.1 (23.5%) (16.7%) 1.5	0 1.1 (0.0%) (0.0%) -1.2	3 2.9 (17.6%) (9.1%) 0.1	17 17.0 (100%) (8.7%)	
합계	38 38.0 (19.5%) (100%)	11 11.0 (5.6%) (100%)	33 33.0 (16.9%) (100%)	43 43.0 (22.1%) (100%)	24 24.0 (12.3%) (100%)	13 13.0 (6.7%) (100%)	33 33.0 (16.9%) (100%)	195 195.0 (100%) (100%)	

<표 14>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남색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초록색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빨강색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초록색을 상대적으로 적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초록색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주황색을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선호색상에 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분포도가 전체 성인여성의 분포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두 번째 선호색상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에 의하면 연령대와 첫 번째 선호색상이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 .421로 일반적인 유의수준 .05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와 두 번째 선호색상은 독립적으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5>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연령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20대	3 4.9 (9.1%) (10.3%) -1.0	5 3.0 (15.2%) (27.8%) 1.3	5 5.2 (15.2%) (16.1%) -0.1	5 7.8 (15.2%) (10.9%) -1.3	8 6.8 (24.2%) (20.0%) 0.6	3 2.4 (9.1%) (21.4%) 0.5	4 2.9 (12.1%) (23.5%) 0.8	33 33.0 (100%) (16.9%)	22.28 (.421)
30대	3 3.4 (13.0%) (10.3%) -0.3	1 2.1 (4.3%) (5.6%) -0.9	7 3.7 (30.4%) (22.6%) 2.0	8 5.4 (34.8%) (17.4%) 1.3	3 4.7 (13.0%) (7.5%) -0.9	1 1.7 (4.3%) (7.1%) -0.6	0 2.0 (0.0%) (0.0%) -1.6	23 23.0 (100%) (11.8%)	
40대	8 8.9 (13.3%) (27.6%) -0.4	4 5.5 (6.7%) (22.2%) -0.8	7 9.5 (11.7%) (22.6%) -1.1	19 14.2 (31.7%) (41.3%) 1.8	14 12.3 (23.3%) (35.0%) 0.7	3 4.3 (5.0%) (21.4%) -0.8	5 5.2 (8.3%) (29.4%) -0.1	60 60.0 (100%) (30.8%)	
50대	10 9.2 (16.1%) (34.5%) 0.3	7 5.7 (11.3%) (38.9%) 0.7	11 9.9 (17.7%) (35.5%) 0.5	11 14.6 (17.7%) (23.9%) -1.3	13 12.7 (21.0%) (32.5%) 0.1	4 4.5 (6.5%) (28.6%) -0.3	6 5.4 (9.7%) (35.3%) 0.3	62 62.0 (100%) (31.8%)	
60대	5 2.5 (29.4%) (17.2%) 1.8	1 1.6 (5.9%) (5.6%) -0.5	1 2.7 (5.9%) (3.2%) -1.2	3 4.0 (17.6%) (6.5%) -0.6	2 3.5 (11.8%) (5.0%) -0.9	3 1.2 (17.6%) (21.4%) 1.7	2 1.5 (11.8%) (11.8%) 0.5	17 17.0 (100%) (8.7%)	
합계	29 29.0 (14.9%) (100%)	18 18.0 (9.2%) (100%)	31 31.0 (15.9%) (100%)	46 46.0 (23.6%) (100%)	40 40.0 (20.5%) (100%)	14 14.0 (7.2%) (100%)	17 17.0 (8.7%) (100%)	195 195.0 (100%) (100%)	

연령대에 따른 두 번째 선호색상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에 의하면 연령대와 첫 번째 선호색상이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확률이 .415로 일반적인 유의수준 .05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와 세 번째 선호색상은 독립적으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6> 연구대상의 연령대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연령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 확률)
20대	3 2.7 (9.1%) (18.8%) 0.2	3 4.4 (9.1%) (11.5%) -0.8	7 5.9 (21.2%) (20.0%) 0.5	9 5.6 (27.3%) (27.3%) 1.7	5 5.1 (15.2%) (16.7%) 0.0	2 3.2 (6.1%) (10.5%) -0.8	4 6.1 (12.1%) (11.1%) -1.0	33 33.0 (100%) (16.9%)	22.33 (.415)
30대	2 1.9 (8.7%) (12.5%) 0.1	3 3.1 (13.0%) (11.5%) 0.0	4 4.1 (17.4%) (11.4%) -0.1	4 3.9 (17.4%) (12.1%) 0.1	2 3.5 (8.7%) (6.7%) -0.9	2 2.2 (8.7%) (10.5%) -0.2	6 4.2 (26.1%) (16.7%) 1.0	23 23.0 (100%) (11.8%)	
40대	3 4.9 (5.0%) (18.8%) -1.1	10 8.0 (16.7%) (38.5%) 0.9	13 10.8 (21.7%) (37.1%) 0.9	9 10.2 (15.0%) (27.3%) -0.5	13 9.2 (21.7%) (43.3%) 1.6	4 5.8 (6.7%) (21.1%) -1.0	8 11.1 (13.3%) (22.2%) -1.2	60 60.0 (100%) (30.8%)	
50대	7 5.1 (11.3%) (43.8%) 1.1	6 8.3 (9.7%) (23.1%) -1.0	10 11.1 (16.1%) (28.6%) -0.5	8 10.5 (12.9%) (24.2%) -1.0	6 9.5 (9.7%) (20.0%) -1.5	11 6.0 (17.7%) (57.9%) 2.6	14 11.4 (22.6%) (38.9%) 1.0	62 62.0 (100%) (31.8%)	
60대	1 1.4 (5.9%) (6.2%) -0.4	4 2.3 (23.5%) (15.4%) 1.3	1 3.1 (5.9%) (2.9%) -1.4	3 2.9 (17.6%) (9.1%) 0.1	4 2.6 (23.5%) (13.3%) 1.0	0 1.7 (0.0%) (0.0%) -1.4	4 3.1 (23.5%) (11.1%) 0.6	17 17.0 (100%) (8.7%)	
합계	16 16.0 (8.2%) (100%)	26 26.0 (13.3%) (100%)	35 35.0 (17.9%) (100%)	33 33.0 (16.9%) (100%)	30 30.0 (15.4%) (100%)	19 19.0 (9.7%) (100%)	36 36.0 (18.5%) (100%)	195 195.0 (100%) (100%)	

정리하면, 연령대와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대의 경우 소음인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소양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태양인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태음인과 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30대, 40대, 50대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우 체질유형의 분포도가 전체 성인여성의 분포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첫 번째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대의 경우 남색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초록색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빨강색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초록색을 상대적으로 적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초록색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주황색을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선호색상에 대한 분포도가 전체 성인여성의 분포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성격과 색상선호도의 관계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 선호하는 색상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과 첫 번째 선호 색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할표(contingency table)는 <표 17>과 같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7> 연구대상의 성격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성격 유형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 확률)
본능형	29 25.1 (22.5%) (76.3%) 1.5	5 7.3 (3.9%) (45.5%) -1.5	23 21.8 (17.8%) (69.7%) 0.5	28 28.4 (21.7%) (65.1%) -0.2	17 15.9 (13.2%) (70.8%) 0.5	9 8.6 (7.0%) (69.2%) 0.2	18 21.8 (14.0%) (54.5%) -1.5	129 129.0 (100%) (66.2%)	17.40 (.067)
정서형	9 8.4 (20.9%) (23.7%) 0.3	4 2.4 (9.3%) (36.4%) 1.2	7 7.3 (16.3%) (21.2%) -0.1	8 9.5 (18.6%) (18.6%) -0.6	6 5.3 (14.0%) (25.0%) 0.4	1 2.9 (2.3%) (7.7%) -1.3	8 7.3 (18.6%) (24.2%) 0.3	43 43.0 (100%) (22.1%)	
인지형	0 4.5 (0%) (0%) -2.5	2 1.3 (8.7%) (18.2%) 0.7	3 3.9 (13.0%) (9.1%) -0.5	7 5.1 (30.4%) (16.3%) 1.0	1 2.8 (4.3%) (4.2%) -1.2	3 1.5 (13.0%) (23.1%) 1.3	7 3.9 (30.4%) (21.2%) 1.8	23 23.0 (100%) (11.8%)	
합계	38 38.0 (19.5%) (100%)	11 11.0 (5.6%) (100%)	33 33.0 (16.9%) (100%)	43 43.0 (22.1%) (100%)	24 24.0 (12.3%) (100%)	13 13.0 (6.7%) (100%)	33 33.0 (16.9%) (100%)	195 195.0 (100%) (100%)	

연구대상의 성격별 선호대상 분할표를 토대로 성격과 첫 번째 색상선호도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67로 유의수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에니어그램 성격별로 첫 번째 색상선호도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약하게 기각되어 성격별로 첫 번째 선호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능형의 성인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강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하고 주황색과 보라색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는 색상과 선호하지 않는 색상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주황색을 선호하고 남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보라색을 선호하고 빨강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능형 성인 여성의 경우 첫 번째 선호하는 색상으로 빨강색을 선호하고 머리형 여성의 경우 보라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CRR 분석법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CRR 분석법에 의하면 빨강색을 첫 번째 선호색상으로 선택하는 사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경우 본질적으로 사고력과 지도력이 있으며, 경쟁심이 강하고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어서 남을 따르기 보다는 앞서서 이끄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형의 특징이 강력하고, 단호하며, 자기신념이 강한 지도자 유형(8번 유형), 태평하고 냉정하지만, 수용적이고, 수동적이며, 믿음직한 성격의 중재자 유형(9번 유형),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유형으로 원칙적이고, 규범적이며, 편협한 성격인 개혁가 유형(1번 유형)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본능 중심인 장형의 첫 번째 선호색상이 빨강색으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보라색을 첫 번째 선호색상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경우, CRR 분석법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친절하고 완화하고 사려 깊으며, 타인을 애정과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과 연민으로 대할 줄 알고,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성숙함을 지녔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형 성격 소유자의 특징이 지적이고 분석적인 유형으로 통찰을 잘하고 독창적인 성격인 사색가 유형(5번 유형), 의무적이고 전통적인 유형으로 책임감이 강한 충성가 유형(6번 유형), 극도로 활동적이며 개방적인 유형으로 정열적이고 완벽한 성향을 가진 낙천가 유형(7번 유형)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중심인 머리형의 첫 번째 선호색상이 보라색으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이 선호하는 색상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과 두 번째 선호 색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할표는 <표 18>과 같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8> 연구대상의 성격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성격 유형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본능형	18 19.2 (14.0%) (62.1%) -0.5	11 11.9 (8.5%) (61.1%) -0.5	18 20.5 (14.0%) (58.1%) -1.0	32 30.4 (24.8%) (69.6%) 0.6	30 26.5 (23.3%) (75.0%) 1.3	11 9.3 (8.5%) (78.6%) 1.0	9 11.2 (7.0%) (52.9%) -1.2	129 129.0 (100%) (66.2%)	12.13 (.406)
정서형	9 6.4 (20.9%) (31.0%) 1.3	5 4.0 (11.6%) (27.8%) 0.6	9 6.8 (20.9%) (29.0%) 1.0	9 10.1 (20.9%) (19.6%) -0.5	7 8.8 (16.3%) (17.5%) -0.8	2 3.1 (4.7%) (14.3%) -0.7	2 3.7 (4.7%) (11.8%) -1.1	43 43.0 (100.0%) 22.1%	
인지형	2 3.4 (8.7%) (6.9%) -0.9	2 2.1 (8.7%) (11.1%) -0.1	4 3.7 (17.4%) (12.9%) 0.2	5 5.4 (21.7%) (10.9%) -0.2	3 4.7 (13.0%) (7.5%) -0.9	1 1.7 (4.3%) (7.1%) -0.6	6 2.0 (26.1%) (35.3%) 3.1	23 23.0 (100%) (11.8%)	
합계	29 29.0 (14.9%) (100%)	18 18.0 (9.2%) (100%)	31 31.0 (15.9%) (100%)	46 46.0 (23.6%) (100%)	40 40.0 (20.5%) (100%)	14 14.0 (7.2%) (100%)	17 17.0 (8.7%) (100%)	195 195.0 (100%) (100%)	

연구대상의 성격과 두 번째 색상선호도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독립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4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성격별로 두 번째 선호색상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두 번째 선호색상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고 중심의 머리형 성격 소유자의 경우 보라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CRR 분석법에 의하면, 머리형 성인 여성의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는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하고,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애써 보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인 여성이 선호하는 색상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과 세 번째 선호 색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할표는 <표 19>와 같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9> 연구대상의 성격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성격 유형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본능형	13 10.6 (10.1%) (81.2%) 1.3	12 17.2 (9.3%) (46.2%) -2.3	21 23.2 (16.3%) (60.0%) -0.8	24 21.8 (18.6%) (72.7%) 0.9	17 19.8 (13.2%) (56.7%) -1.2	15 12.6 (11.6%) (78.9%) 1.2	27 23.8 (20.9%) (75.0%) 1.2	129 129.0 (100%) (66.2%)	13.18 (.335)
정서형	2 3.5 (4.7%) (12.5%) -1.0	8 5.7 (18.6%) (30.8%) 1.2	9 7.7 (20.9%) (25.7%) 0.6	6 7.3 (14.0%) (18.2%) -0.6	9 6.6 (20.9%) (30.0%) 1.1	4 4.2 (9.3%) (21.1%) -0.1	5 7.9 (11.6%) (13.9%) -1.3	43 43.0 (100%) (22.1%)	
인지형	1 1.9 (4.3%) (6.2%) -0.7	6 3.1 (26.1%) (23.1%) 1.9	5 4.1 (21.7%) (14.3%) 0.5	3 3.9 (13.0%) (9.1%) -0.5	4 3.5 (17.4%) (13.3%) 0.3	0 2.2 (0.0%) (0.0%) -1.7	4 4.2 (17.4%) (11.1%) -0.1	23 23.0 (100%) (11.8%)	
합계	16 16.0 (8.2%) (100%)	26 26.0 13.3% (100%)	35 35.0 17.9% (100%)	33 33.0 16.9% (100%)	30 30.0 15.4% (100%)	19 19.0 9.7% (100%)	36 36.0 18.5% (100%)	195 195.0 (100%) (100%)	

연구대상의 성격과 세 번째 색상선호도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3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성격별로 세 번째 선호색상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별 색상선호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성격과 두 번째 선호색상, 세 번째 선호색상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첫 번째 선호색상의 경우 유의수준 10%에서 성격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능형의 성인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강색을 선호하고,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는 색상이 없으며,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보라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체질과 색상선호도의 관계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의한 체질유형과 첫 번째 선호하는 색상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할표(contingency table)는 <표 20>과 같게 나타났다.

<표 20> 연구대상의 체질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체질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태음인 (A형)	20 16.6 (23.5%) (52.6%) 1.3	4 4.8 (4.7%) (36.4%) -0.5	16 14.4 (18.8%) (48.5%) 0.6	19 18.7 (22.4%) (44.2%) 0.1	7 10.5 (8.2%) (29.2%) -1.5	5 5.7 (5.9%) (38.5%) -0.4	14 14.4 (16.5%) (42.4%) -0.1	85 85.0 (100%) (43.6%)	
소음인 (B형)	4 9.2 (8.5%) (10.5%) -2.2	3 2.7 (6.4%) (27.3%) 0.3	11 8.0 (23.4%) (33.3%) 1.4	11 10.4 (23.4%) (25.6%) 0.3	6 5.8 (12.8%) (25.0%) 0.1	3 3.1 (6.4%) (23.1%) -0.1	9 8.0 (19.1%) (27.3%) 0.5	47 47.0 (100%) (24.1%)	
태양인 (AB형)	6 3.9 (30.0%) (15.8%) 1.3	2 1.1 (10.0%) (18.2%) 0.9	0 3.4 (0.0%) (0.0%) -2.1	4 4.4 (20.0%) (9.3%) -0.2	5 2.5 (25.0%) (20.8%) 1.8	2 1.3 (10.0%) (15.4%) 0.6	1 3.4 (5.0%) (3.0%) -1.5	20 20.0 (100%) 10.3%	19.12 (.273)
소양인 (O형)	8 8.4 (18.6%) (21.1%) -0.2	2 2.4 (4.7%) (18.2%) -0.3	6 7.3 (14.0%) (18.2%) -0.6	9 9.5 (20.9%) (20.9%) -0.2	6 5.3 (14.0%) (25.0%) 0.4	3 2.9 (7.0%) (23.1%) 0.1	9 7.3 (20.9%) (27.3%) 0.8	43 43.0 (100%) (22.1%)	
합계	38 38.0 (19.5%) (100%)	11 11.0 (5.6%) (100%)	33 33.0 (16.9%) (100%)	43 43.0 (22.1%) (100%)	24 24.0 (12.3%) (100%)	13 13.0 (6.7%) (100%)	33 33.0 (16.9%) (100%)	195 195.0 (100%) (100%)	

연구대상의 성격별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를 토대로 체질별로 첫 번째 선호색상이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첫 번째 선호색상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273). 이는 체질별로 첫 번째 선호하는 색상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할표를 살펴보면 소음인(B형)의 경우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태양인(AB형)의 경우 파랑색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노랑색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의한 체질유형과 두 번째 선호하는 색상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할표는 <표 21>과 같게 나타났다.

<표 21> 연구대상의 체질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선호색 / 체질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태음인 (A형)	11 12.6 (12.9%) (37.9%) -0.7	8 7.8 (9.4%) (44.4%) 0.1	21 13.5 (24.7%) (67.7%) 3.0	19 20.1 (22.4%) (41.3%) -0.4	18 17.4 (21.2%) (45.0%) 0.2	3 6.1 (3.5%) (21.4%) -1.7	5 7.4 (5.9%) (29.4%) -1.2	85 85.0 (100%) (43.6%)	
소음인 (B형)	5 7.0 (10.6%) (17.2%) -0.9	5 4.3 (10.6%) (27.8%) 0.4	4 7.5 (8.5%) (12.9%) -1.6	10 11.1 (21.3%) (21.7%) -0.4	11 9.6 (23.4%) (27.5%) 0.6	5 3.4 (10.6%) (35.7%) 1.1	7 4.1 (14.9%) (41.2%) 1.7	47 47.0 (100%) (24.1%)	
태양인 (AB형)	2 3.0 (10.0%) (6.9%) -0.6	1 1.8 (5.0%) (5.6%) -0.7	1 3.2 (5.0%) (3.2%) -1.4	5 4.7 (25.0%) (10.9%) 0.5	5 4.1 (25.0%) (12.5%) 0.5	5 1.4 (25.0%) (35.7%) 3.3	1 1.7 (5.0%) (5.9%) -0.6	20 20.0 (100%) (10.3%)	25.71 (.073)
소양인 (O형)	11 6.4 (25.6%) (37.9%) 2.2	4 4.0 (9.3%) (22.2%) 0.0	5 6.8 (11.6%) (16.1%) -0.9	12 10.1 (27.9%) (26.1%) 0.8	6 8.8 (14.0%) (15.0%) -1.2	1 3.1 (2.3%) (7.1%) -1.4	4 3.7 (9.3%) (23.5%) 0.2	43 43.0 (100%) (22.1%)	
합계	29 29.0 (14.9%) (100%)	18 18.0 (9.2%) (100%)	31 31.0 (15.9%) (100%)	46 46.0 (23.6%) (100%)	40 40.0 (20.5%) (100%)	14 14.0 (7.2%) (100%)	17 17.0 (8.7%) (100%)	195 195.0 (100%) (100%)	

성인 여성의 체질유형별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를 토대로 체질유형과 두 번째 선호색상의 서로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73으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체질유형별로 두 번째 선호색상이 다를 수 있다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태음인(A형)의 경우 노랑(yellow)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남색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호하고 있으며, 소음인(B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라색(violet)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태양인(AB형)인 경우 상대적으로 남색(indigo)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소양인(O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강(red)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체질 의학에 의하면 태음인은 꾸준하고 침착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성취해내려는 장점이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행정적인 일에 능하고, 침착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이 강하며, 정직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믿음직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안일한 것을 좋아하는 편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관심의 범위가 자신의 일 외에는 그다지 넓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외골수이며 고집이 세고 게으를 때는 한없이 게으름 성향이 있으며,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예의범절과 지구력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성격의 소유자로 표현되고 있다. CRR 분석법에 의하면 두 번째 선호색상이 노랑일 경우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환상, 꿈과 같은 개념적인 세계에서 빠져나와 개인의 정신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자아까지 생각하여 현재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태음인의 경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소음인은 세심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데 유리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리 세밀하게 계획을 살피는 성향과 유순하고 침착하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총명한 편이며 빈틈이 없고 사리분별이 분명하여 예의가 바르고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며, 내성적이고 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한번 상하면 잘 잊지 못하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많고, 개인주의가 강하여 남의 간섭을 싫어하며 이해타산에 얽매이기도 하는 성향이 있다. CRR 분석법에 의하면 두 번째 선호색상이 보라색일 경우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하고,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애써 보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태양인의 경우 적극적이며 상대방을 어려워하지 않고 소통을 잘하며, 저돌적이며 후퇴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영웅주의에 빠지는 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향이 있으며,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분노를 표출하기 쉽고 고민이 많은 편이지만 용맹하고 적극적이며 감수성이 과민하며,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해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꼼꼼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성격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지도자형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독재자형이다. CRR 분석법에 의하면 두 번째 선호색상이 남색일 경우 여러 가지를 통합하여 짜 맞추는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자긍심이 부족하여 정서 불안에 시달리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끈기를 발휘하고, 주위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양인은 두뇌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워하지 않으며,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으며 이해타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솔직 담백하고 강하며 날렵한 성격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외부의 칭찬을 좋아하고 안에서 충실이 일하는 것에는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활동적이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급한 성격이 단점이고 외부 일에 분주하여 자신에 관한 일 또는 집안일 등에 소홀한 편이고 일을 벌이려고 하고 거두어 정리하지 않으며 잘 안되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다른 일을 벌이는 성격으로 시작은 잘 하나 마무리가 부족하며 지구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잘 느끼고 체념을 쉽게 하는 성향이 있다. CRR 분석법에 의하면 두 번째 선호색상이 빨강일 경우 맹렬한 에너지를 조절하여 힘이 고갈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적인 성향, 공격성, 강한 성적 자극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랑, 애정, 우정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의한 체질유형과 세 번째 선호하는 색상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할표는 <표 22>와 같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2> 연구대상의 체질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체질 \ 선호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태음인 (A형)	6 7.0 (7.1%) (37.5%) -0.5	14 11.3 (16.5%) (53.8%) 1.1	14 15.3 (16.5%) (40.0%) -0.5	19 14.4 (22.4%) (57.6%) 1.8	12 13.1 (14.1%) (40.0%) -0.4	8 8.3 (9.4%) (42.1%) -0.1	12 15.7 (14.1%) (33.3%) -1.4	85 85.0 (100%) (43.6%)	13.85 (.611)
소음인 (B형)	6 3.9 (12.8%) (37.5%) 1.3	3 6.3 (6.4%) (11.5%) -1.6	9 8.4 (19.1%) (25.7%) 0.2	9 8.0 (19.1%) (27.3%) 0.5	7 7.2 (14.9%) (23.3%) -0.1	4 4.6 (8.5%) (21.1%) -0.3	9 8.7 (19.1%) (25.0%) 0.1	47 47.0 (100%) (24.1%)	
태양인 (AB형)	0 1.6 (0.0%) (0.0%) -1.4	3 2.7 (15.0%) (11.5%) 0.2	4 3.6 (20.0%) (11.4%) 0.3	2 3.4 (10.0%) (6.1%) -0.9	3 3.1 (15.0%) (10.0%) -0.1	2 1.9 (10.0%) (10.5%) 0.0	6 3.7 (30.0%) (16.7%) 1.4	20 20.0 (100%) (10.3%)	
소양인 (O형)	4 3.5 (9.3%) (25.0%) 0.3	6 5.7 (14.0%) (23.1%) 0.1	8 7.7 (18.6%) (22.9%) 0.1	3 7.3 (7.0%) (9.1%) -2.0	8 6.6 (18.6%) (26.7%) 0.7	5 4.2 (11.6% (26.3%) 0.5	9 7.9 (20.9%) (25.0%) 0.5	43 43.0 (100%) (22.1%)	
합계	16 16.0 (8.2%) (100%)	26 26.0 (13.3%) (100%)	35 35.0 (17.9%) (100%)	33 33.0 (16.9%) (100%)	30 30.0 (15.4%) (100%)	19 19.0 (9.7%) (100%)	36 36.0 (18.5% (100%)	195 195.0 (100%) (100%)	

연구대상의 체질유형별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를 토대로 체질유형과 세 번째 선호색상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체질과 세 번째 선호색상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611).

종합하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질별 색상선호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체질과 첫 번째 선호색상, 세 번째 선호색상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선호색상의 경우 유의수준 10%에서 체질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태음인(A형)의 경우 노랑(yellow)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소음인(B형)의 경우 보라색(violet)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 태양인(AB형)인 경우 남색(indigo)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소양인(O형)의 경우 빨강(red)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절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의 관계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인산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의한 체질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유형과 체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할표는 <표 23>과 같게 나타났다.

<표 23> 연구대상의 성격유형과 체질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체질 / 성격유형	태음인 (A형)	소음인 (B형)	태양인 (AB형)	소양인 (O형)	합계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본능형	57 56.2 (44.2%) (67.1%) 0.2	28 31.1 (21.7%) (59.6%) -1.1	17 13.2 (13.2%) (85.0%) 1.9	27 28.4 (20.9%) (62.8%) -0.5	129 129.0 (100%) (66.2%)	11.14 (.084)
정서형	23 18.7 (53.5%) (27.1%) 1.5	10 10.4 (23.3%) (21.3%) -0.1	2 4.4 (4.7%) (10.0%) -1.4	8 9.5 (18.6%) (18.6%) -0.6	43 43.0 (100%) (22.1%)	
인지형	5 10.0 (21.7%) (5.9%) -2.3	9 5.5 (39.1%) (19.1%) 1.8	1 2.4 (4.3%) (5.0%) -1.0	8 5.1 (34.8%) (18.6%) 1.6	23 23.0 (100%) (11.8%)	
합계	85 85.0 (43.6%) (100%)	47 47.0 (24.%) (100%)	20 20.0 (10.3%) (100%)	43 43.0 (22.1%) (100%)	195 195.0 (100%) (100%)	

연구대상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간의 분할표를 토대로 성격유형과 체질유형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확률(p-값)이 .084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유형과 체질유형간의 관계가 없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격유형과 체질유형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유형별 체질유형의 분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능형 성인 여성의 경우 태양인(AB형)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태음인(A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소음인(B형)과 소양인(O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절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관계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인산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유형과 체질에 대한 첫 번째 색상선호도의 분할표는 <표 24>와 같게 나타났다.

<표 24> 연구대상의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첫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성격유형 \ 선호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본능형	태음인 (A형)	16 12.8 (28.1%) (55.2%) 1.4	2 2.2 (3.5%) (40.0%) -0.2	12 10.2 (21.1%) (52.2%) 0.9	14 12.4 (24.6%) (50.0%) 0.7	3 7.5 (5.3%) (17.6%) -2.4	4 4.0 (7.0%) (44.4%) 0.0	6 8.0 (10.5%) (33.3%) -1.0	57 57.0 (100%) (44.2%)	19.58 (.357)
	소음인 (B형)	2 6.3 (7.1%) (6.9%) -2.2	1 1.1 (3.6%) (20.0%) -0.1	7 5.0 (25.0%) (30.4%) 1.1	6 6.1 (21.4%) (21.4%) 0.0	5 3.7 (17.9%) (29.4%) 0.8	2 2.0 (7.1%) (22.2%) 0.0	5 3.9 (17.9%) (27.8%) 0.7	28 28.0 (100%) (21.7%)	
	태양인 (AB형)	5 3.8 (29.4%) (17.2%) 0.7	1 .7 (5.9%) (20.0%) 0.5	0 3.0 (0.0%) (0.0%) -2.1	3 3.7 (17.6%) (10.7%) -0.4	5 2.2 (29.4%) (29.4%) 2.1	2 1.2 (11.8%) (22.2%) 0.8	1 2.4 (5.9%) (5.6%) -1.0	17 17.0 (100%) (13.2%)	
	소양인 (O형)	6 6.1 (22.2%) (20.7%) 0.0	1 1.0 (3.7%) (20.0%) -0.1	4 4.8 (14.8%) (17.4%) -0.5	5 5.9 (18.5%) (17.9%) -0.5	4 3.6 (14.8%) (23.5%) 0.3	1 1.9 (3.7%) (11.1%) -0.8	6 3.8 (22.2%) (33.3%) 1.4	27 27.0 (100%) (20.9%)	
	전체	29 29.0 (22.5%) (100%)	5 5.0 (3.9%) (100%)	23 23.0 (17.8%) (100%)	28 28.0 (21.7%) (100%)	17 17.0 (13.2%) (100%)	9 9.0 (7.0%) (100%)	18 18.0 (14.0%) (100%)	129 129.0 (100%)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서형	태음인(A형)	4 4.8 (17.4%) (44.4%) -0.6	2 2.1 (8.7%) (50.0%) -0.1	3 3.7 (13.0%) (42.9%) -0.6	3 4.3 (13.0%) (37.5%) -1.0	4 3.2 (17.4%) (66.7%) 0.7	1 0.5 (4.3%) (100%) 0.9	6 4.3 (26.1%) (75.0%) 1.4	23 23.0 (100%) (53.5%)	8.83 (.963)
	소음인(B형)	2 2.1 (20.0%) (22.2%) -0.1	2 0.9 (20.0%) (50.0%) 1.3	2 1.6 (20.0%) (28.6%) 0.4	2 1.9 (20.0%) (25.0%) 0.1	1 1.4 (10.0%) (16.7%) -0.4	0 0.2 (0.0%) (0.0%) -0.6	1 1.9 (10.0%) (12.5%) -0.8	10 10.0 (100%) (23.3%)	
	태양인(AB형)	1 0.4 (50.0%) (11.1%) 1.0	0 0.2 (0.0%) (0.0%) -0.5	0 0.3 (0.0%) (0.0%) -0.6	1 0.4 (50.0%) (12.5%) 1.2	0 0.3 (0.0%) (0.0%) -0.6	0 0.0 (0.0%) (0.0%) -0.2	0 0.4 (0.0%) (0.0%) -0.7	2 2.0 (100%) 4.7%	
	소양인(O형)	2 1.7 (25.0%) (22.2%) 0.3	0 .7 (0.0%) (0.0%) -1.0	2 1.3 (25.0%) (28.6%) 0.7	2 1.5 (25.0%) (25.0%) 0.5	1 1.1 (12.5%) (16.7%) -0.1	0 0.2 (0.0%) (0.0%) -0.5	1 1.5 (12.5%) (12.5%) -0.5	8 8.0 (100%) (18.6%)	
	전체	9 9.0 (20.9%) (100%)	4 4.0 (9.3%) (100%)	7 7.0 (16.3%) (100%)	8 8.0 (18.6%) (100%)	6 6.0 (14.0%) (100%)	1 1.0 (2.3%) (100%)	8 8.0 (18.6%) (100%)	43 43.0 (100%) (100%)	
인지형	태음인(A형)		0 0.4 (0.0%) (0.0%) -0.8	1 0.7 (20.0%) (33.3%) 0.5	2 1.5 (40.0%) (28.6%) 0.5	0 0.2 (0.0%) (0.0%) -0.5	0 0.7 (0.0%) (0.0%) -1.0	2 1.5 (40.0%) (28.6%) 0.5	5 5.0 (100%) (21.7%)	17.55 (.287)
	소음인(B형)		0 0.8 (0.0%) (0.0%) -1.2	2 1.2 (22.2%) (66.7%) 1.0	3 2.7 (33.3%) (42.9%) 0.2	0 0.4 (0.0%) (0.0%) -0.8	1 1.2 (11.1%) (33.3%) -0.2	3 2.7 (33.3%) (42.9%) 0.2	9 9.0 (100%) (39.1%)	
	태양인(AB형)		1 0.1 (100%) (50.0%) 3.3	0 0.1 (0.0%) (0.0%) -0.4	0 0.3 (0.0%) (0.0%) -0.7	0 0.0 (0.0%) (0.0%) -0.2	0 0.1 (0.0%) (0.0%) -0.4	0 0.3 (0.0%) (0.0%) -0.7	1 1.0 (100%) (4.3%)	
	소양인(O형)		1 0.7 (12.5%) (50.0%) 0.5	0 1.0 (0.0%) (0.0%) -1.4	2 2.4 (25.0%) (28.6%) -0.4	1 0.3 (12.5%) (100%) 1.4	2 1.0 (25.0%) (66.7%) 1.2	2 2.4 (25.0%) (28.6%) -0.4	8 8.0 (100%) (34.8%)	
	전체		2 2.0 (8.7%) (100%)	3 3.0 (13.0%) (100%)	7 7.0 (30.4%) (100%)	1 1.0 (4.3%) (100%)	3 3.0 (13.0%) (100%)	7 7.0 (30.4%) (100%)	23 23.0 (100%)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체	태음인 (A형)	20 16.6 (23.5%) (52.6%) 1.3	4 4.8 (4.7%) (36.4%) -0.5	16 14.4 (18.8%) (48.5%) 0.6	19 18.7 (22.4%) (44.2%) 0.1	7 10.5 (8.2%) (29.2%) -1.5	5 5.7 (5.9%) (38.5%) -0.4	14 14.4 (16.5%) (42.4%) -0.1	85 85.0 (100%) (43.6%)	17.28 (.504)
	소음인 (B형)	4 9.2 (8.5%) (10.5%) -2.2	3 2.7 (6.4%) (27.3%) 0.3	11 8.0 (23.4%) (33.3%) 1.4	11 10.4 (23.4%) (25.6%) 0.3	6 5.8 (12.8%) (25.0%) 0.1	3 3.1 (6.4%) (23.1%) -0.1	9 8.0 (19.1%) (27.3%) 0.5	47 47.0 (100%) (24.1%)	
	태양인 (AB형)	6 3.9 (30.0%) (15.8%) 1.3	2 1.1 (10.0%) (18.2%) 0.9	0 3.4 (0.0%) (0.0%) -2.1	4 4.4 (20.0%) (9.3%) -0.2	5 2.5 (25.0%) (20.8%) 1.8	2 1.3 (10.0%) (15.4%) 0.6	1 3.4 (5.0%) (3.0%) -1.5	20 20.0 (100%) (10.3%)	
	소양인 (O형)	8 8.4 (18.6%) (21.1%) -0.2	2 2.4 (4.7%) (18.2%) -0.3	6 7.3 (14.0%) (18.2%) -0.6	9 9.5 (20.9%) (20.9%) -0.2	6 5.3 (14.0%) (25.0%) 0.4	3 2.9 (7.0%) (23.1%) 0.1	9 7.3 (20.9%) (27.3%) 0.8	43 43.0 (100%) (22.1%)	
합계		38 38.0 (19.5%) (100%)	11 11.0 (5.6%) (100%)	33 33.0 (16.9%) (100%)	43 43.0 (22.1%) (100%)	24 24.0 (12.3%) (100%)	13 13.0 (6.7%) (100%)	33 33.0 (16.9%) (100%)	195 195.0 (100%) (100%)	

성격유형과 체질에 대한 첫 번째 색상선호도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셀의 기대빈도가 5 이상이 되는 셀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인여성 195명은 성격과 체질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독립성 검정을 진행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로는 작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 제시의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24>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인산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유형과 체질에 대한 두 번째 색상선호도의 분할표는 <표 25>와 같게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5> 연구대상의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두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성격유형 \ 선호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본능형	태음인 (A형)	5 8.0 (8.8%) (27.8%) -1.5	6 4.9 (10.5%) (54.5%) 0.7	12 8.0 (21.1%) (66.7%) 2.1	14 14.1 (24.6%) (43.8%) -0.1	14 13.3 (24.6%) (46.7%) 0.3	3 4.9 (5.3%) (27.3%) -1.2	3 4.0 (5.3%) (33.3%) -0.7	57 57.0 (100%) (44.2%)	29.03 (.048)
	소음인 (B형)	4 3.9 (14.3%) (22.2%) 0.1	3 2.4 (10.7%) (27.3%) 0.5	2 3.9 (7.1%) (11.1%) -1.2	4 6.9 (14.3%) (12.5%) -1.5	8 6.5 (28.6%) (26.7%) 0.8	2 2.4 (7.1%) (18.2%) -0.3	5 2.0 (17.9%) (55.6%) 2.6	28 28.0 (100%) (21.7%)	
	태양인 (AB형)	2 2.4 (11.8%) (11.1%) -0.3	1 1.4 (5.9%) (9.1%) -0.4	1 2.4 (5.9%) (5.6%) -1.0	5 4.2 (29.4%) (15.6%) 0.5	3 4.0 (17.6%) (10.0%) -0.6	5 1.4 (29.4%) (45.5%) 3.3	0 1.2 (0.0%) (0.0%) -1.2	17 17.0 (100%) (13.2%)	
	소양인 (O형)	7 3.8 (25.9%) (38.9%) 2.0	1 2.3 (3.7%) (9.1%) -1.0	3 3.8 (11.1%) (16.7%) -0.5	9 6.7 (33.3%) (28.1%) 1.2	5 6.3 (18.5%) (16.7%) -0.7	1 2.3 (3.7%) (9.1%) -1.0	1 1.9 (3.7%) (11.1%) -0.8	27 27.0 (100%) (20.9%)	
	전체	18 18.0 (14.0%) (100%)	11 11.0 (8.5%) (100%)	18 18.0 (14.0%) (100%)	32 32.0 (24.8%) (100%)	30 30.0 (23.3%) (100%)	11 11.0 (8.5%) (100%)	9 9.0 (7.0%) (100%)	129 129.0 (100%) (100%)	
정서형	태음인 (A형)	6 4.8 (26.1%) (66.7%) 0.9	1 2.7 (4.3%) (20.0%) -1.6	7 4.8 (30.4%) (77.8%) 1.6	4 4.8 (17.4%) (44.4%) -0.6	4 3.7 (17.4%) (57.1%) 0.2	0 1.1 (0.0%) (0.0%) -1.6	1 1.1 (4.3%) (50.0%) -0.1	23 23.0 (100%) (53.5%)	29.61 (.041)
	소음인 (B형)	1 2.1 (10.0%) (11.1%) -1.0	1 1.2 (10.0%) (20.0%) -0.2	1 2.1 (10.0%) (11.1%) -1.0	3 2.1 (30.0%) (33.3%) 0.8	2 1.6 (20.0%) (28.6%) 0.4	2 0.5 (20.0%) (100%) 2.6	0 0.5 (0.0%) (0.0%) -0.8	10 10.0 (100%) (23.3%)	
	태양인 (AB형)	0 0.4 (0.0%) (0.0%) -0.7	0 0.2 (0.0%) (0.0%) -0.5	0 0.4 (0.0%) (0.0%) -0.7	0 0.4 (0.0%) (0.0%) -0.7	1 0.3 (50.0%) (14.3%) 1.3	0 0.1 (0.0%) (0.0%) -0.3	1 0.1 (50.0%) (50.0%) 3.1	2 2.0 (100%) (4.7%)	
	소양인 (O형)	2 1.7 (25.0%) (22.2%) 0.3	3 0.9 (37.5%) (60.0%) 2.5	1 1.7 (12.5%) (11.1%) -0.6	2 1.7 (25.0%) (22.2%) 0.3	0 1.3 (0.0%) (0.0%) -1.4	0 0.4 (0.0%) (0.0%) -0.7	0 0.4 (0.0%) (0.0%) -0.7	8 8.0 (100%) (18.6%)	
	전체	9 9.0 (20.9%) (100%)	5 5.0 (11.6%) (100%)	9 9.0 (20.9%) (100%)	9 9.0 (20.9%) (100%)	7 7.0 (16.3%) (100%)	2 2.0 (4.7%) (100%)	2 2.0 (4.7%) (100%)	43 43.0 (100%)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지형	태음인(A형)	0 0.4 (0.0%) (0.0%) -0.8	1 0.4 (20.0%) (50.0%) 1.0	2 0.9 (40.0%) (50.0%) 1.5	1 1.1 (20.0%) (20.0%) -0.1	0 0.7 (0.0%) (0.0%) -1.0	0 0.2 (0.0%) (0.0%) -0.5	1 1.3 (20.0%) (16.7%) -0.4	5 5.0 (100%) (21.7%)	
	소음인(B형)	0 0.8 (0.0%) (0.0%) -1.2	1 0.8 (11.1%) (50.0%) 0.3	1 1.6 (11.1%) (25.0%) -0.6	3 2.0 (33.3%) (60.0%) 1.1	1 1.2 (11.1%) (33.3%) -.2	1 0.4 (11.1%) (100%) 1.3	2 2.3 (22.2%) (33.3%) -0.3	9 9.0 (100%) (39.1%)	
	태양인(AB형)	0 0.1 (0.0%) (0.0%) -0.3	0 0.1 (0.0%) (0.0%) -0.3	0 0.2 (0.0%) (0.0%) -0.5	0 0.2 (0.0%) (0.0%) -0.5	1 0.1 (100%) 33.3% 2.6	0 0.0 (0.0%) (0.0%) -0.2	0 0.3 (0.0%) (0.0%) -0.6	1 1.0 (100%) (4.3%)	17.20 (.510)
	소양인(O형)	2 0.7 (25.0%) (100%) 2.0	0 0.7 (0.0%) (0.0%) -1.1	1 1.4 (12.5%) (25.0%) -0.5	1 1.7 (12.5%) (20.0%) -0.8	1 1.0 (12.5%) (33.3%) -0.1	0 0.3 (0.0%) (0.0%) -0.7	3 2.1 (37.5%) (50.0%) 0.9	8 8.0 (100%) (34.8%)	
	전체	2 2.0 (8.7%) (100%)	2 2.0 (8.7%) (100%)	4 4.0 (17.4%) (100%)	5 5.0 (21.7%) (100%)	3 3.0 (13.0%) (100%)	1 1.0 (4.3%) (100%)	6 6.0 (26.1%) (100%)	23 23.0 (100%) (100%)	
전체	태음인(A형)	11 12.6 (12.9%) (37.9%) -0.7	8 7.8 (9.4%) (44.4%) 0.1	21 13.5 (24.7%) (67.7%) 3.0	19 20.1 (22.4%) (41.3%) -0.4	18 17.4 (21.2%) (45.0%) 0.2	3 6.1 (3.5%) (21.4%) -1.7	5 7.4 (5.9%) (29.4%) -1.2	85 85.0 (100%) (43.6%)	
	소음인(B형)	5 7.0 (10.6%) (17.2%) -0.9	5 4.3 (10.6%) (27.8%) 0.4	4 7.5 (8.5%) (12.9%) -1.6	10 11.1 (21.3%) (21.7%) -0.4	11 9.6 (23.4%) (27.5%) 0.6	5 3.4 (10.6%) (35.7%) 1.1	7 4.1 (14.9%) (41.2%) 1.7	47 47.0 (100%) (24.1%)	
	태양인(AB형)	2 3.0 (10.0%) (6.9%) -0.6	1 1.8 (5.0%) (5.6%) -0.7	1 3.2 (5.0%) (3.2%) -1.4	5 4.7 (25.0%) (10.9%) 0.2	5 4.1 (25.0%) (12.5%) 0.5	5 1.4 (25.0%) (35.7%) 3.3	1 1.7 (5.0%) (5.9%) -0.6	20 20.0 (100%) (10.3%)	30.27 (.035)
	소양인(O형)	11 6.4 (25.6%) (37.9%) 2.2	4 4.0 (9.3%) (22.2%) 0.0	5 6.8 (11.6%) (16.1%) -0.9	12 10.1 (27.9%) (26.1%) 0.8	6 8.8 (14.0%) (15.0%) -1.2	1 3.1 (2.3%) (7.1%) -1.4	4 3.7 (9.3%) (23.5%) 0.2	43 43.0 (100%) (22.1%)	
합계		29 29.0 (14.9%) (100%)	18 18.0 (9.2%) (100%)	31 31.0 (15.9%) (100%)	46 46.0 (23.6%) (100%)	40 40.0 (20.5%) (100%)	14 14.0 (7.2%) (100%)	17 17.0 (8.7%) (100%)	195 195.0 (100%)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격유형과 체질에 대한 두 번째 색상선호도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셀의 기대빈도가 5 이상이 되는 셀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인여성 195명은 성격과 체질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독립성 검정을 진행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로는 작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 제시의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25>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인산혈액형사상체질의학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유형과 체질에 대한 세 번째 색상선호도의 분할표는 <표 26>와 같게 나타났다.

<표 26> 연구대상의 성격과 혈액형사상체질에 따른 세 번째 선호색상 분할표와 독립성 검정
(빈도, 기대 빈도, (행%), (열%), 수정 잔차)

성격유형 \ 선호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합계	검정 통계량 (유의확률)
본능형	태음인 (A형)	5 5.7 (8.8%) (38.5%) -0.4	6 5.3 (10.5%) (50.0%) 0.4	6 9.3 (10.5%) (28.6%) -1.6	15 10.6 (26.3%) (62.5%) 2.0	8 7.5 (14.0%) (47.1%) 0.3	6 6.6 (10.5%) (40.0%) -0.3	11 11.9 (19.3%) (40.7%) -0.4	57 57.0 (100%) (44.2%)	14.17 (.718)
	소음인 (B형)	5 2.8 (17.9%) (38.5%) 1.5	2 2.6 (7.1%) (16.7%) -0.4	4 4.6 (14.3%) (19.0%) -0.3	5 5.2 (17.9%) (20.8%) -0.1	2 3.7 (7.1%) (11.8%) -1.1	4 3.3 (14.3%) (26.7%) 0.5	6 5.9 (21.4%) (22.2%) 0.1	28 28.0 (100%) (21.7%)	
	태양인 (AB형)	0 1.7 (0.0%) (0.0%) -1.5	2 1.6 (11.8%) (16.7%) 0.4	4 2.8 (23.5%) (19.0%) 0.9	2 3.2 (11.8%) (8.3%) -0.8	3 2.2 (17.6%) (17.6%) 0.6	1 2.0 (5.9%) (6.7%) -0.8	5 3.6 (29.4%) (18.5%) 0.9	17 17.0 (100%) (13.2%)	
	소양인 (O형)	3 2.7 (11.1%) (23.1%) 0.2	2 2.5 (7.4%) (16.7%) -0.4	7 4.4 (25.9%) (33.3%) 1.5	2 5.0 (7.4%) (8.3%) -1.7	4 3.6 (14.8%) (23.5%) 0.3	4 3.1 (14.8%) (26.7%) 0.6	5 5.7 (18.5%) (18.5%) -0.3	27 27.0 (100%) (20.9%)	
	전체	13 13.0 (10.1%) (100%)	12 12.0 (9.3%) (100%)	21 21.0 (16.3%) (100%)	24 24.0 (18.6%) (100%)	17 17.0 (13.2%) (100%)	15 15.0 (11.6%) (100%)	27 27.0 (20.9%) (100%)	129 129.0 (100%)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서형	태음인(A형)	1 1.1 (4.3%) (50.0%) -0.1	6 4.3 (26.1%) (75.0%) 1.4	7 4.8 (30.4%) (77.8%) 1.6	3 3.2 (13.0%) (50.0%) -0.2	4 4.8 (17.4%) (44.4%) -0.6	2 2.1 (8.7%) (50.0%) -0.1	0 2.7 (0.0%) (0.0%) -2.6	23 23.0 (100%) (53.5%)	
	소음인(B형)	1 0.5 (10.0%) (50.0%) 0.9	1 1.9 (10.0%) (12.5%) -0.8	1 2.1 (10.0%) (11.1%) -1.0	3 1.4 (30.0%) (50.0%) 1.7	2 2.1 (20.0%) (22.2%) -0.1	0 0.9 (0.0%) (0.0%) -1.2	2 1.2 (20.0%) (40.0%) 0.9	10 10.0 (100%) (23.3%)	
	태양인(AB형)	0 0.1 (0.0%) (0.0%) -.3	1 0.4 (50.0%) (12.5%) 1.2	0 0.4 (0.0%) (0.0%) -0.7	0 0.3 (0.0%) (0.0%) -0.6	0 0.4 (0.0%) (0.0%) -0.7	1 0.2 (50.0%) (25.0%) 2.0	0 0.2 (0.0%) (0.0%) -0.5	2 2.0 (100%) (4.7%)	24.54 (.138)
	소양인(O형)	0 0.4 (0.0%) (0.0%) -0.7	0 1.5 (0.0%) (0.0%) -1.5	1 1.7 (12.5%) (11.1%) -0.6	0 1.1 (0.0%) (0.0%) -1.3	3 1.7 (37.5%) (33.3%) 1.3	1 0.7 (12.5%) (25.0%) 0.3	3 0.9 (37.5%) (60.0%) 2.5	8 8.0 (100%) (18.6%)	
	전체	2 2.0 (4.7%) (100%)	8 8.0 (18.6%) (100%)	9 9.0 (20.9%) (100%)	6 6.0 (14.0%) (100%)	9 9.0 (20.9%) (100%)	4 4.0 (9.3%) (100%)	5 5.0 (11.6%) (100%)	43 43.0 (100%) (100%)	
인지형	태음인(A형)	0 .2 (0.0%) (0.0%) -0.5	2 1.3 (40.0%) (33.3%) 0.8	1 1.1 (20.0%) (20.0%) -0.1	1 .7 (20.0%) (33.3%) 0.5	0 0.9 (0.0%) (0.0%) -1.2		1 0.9 (20.0%) (25.0%) 0.2	5 5.0 (100%) (21.7%)	
	소음인(B형)	0 0.4 (0.0%) (0.0%) -0.8	0 2.3 (0.0%) (0.0%) -2.3	4 2.0 (44.4%) (80.0%) 2.1	1 1.2 (11.1%) (33.3%) -0.2	3 1.6 (33.3%) (75.0%) 1.6		1 1.6 (11.1%) (25.0%) -0.6	9 9.0 (100%) (39.1%)	
	태양인(AB형)	0 0.0 (0.0%) (0.0%) -0.2	0 0.3 (0.0%) (0.0%) -0.6	0 0.2 (0.0%) (0.0%) -0.5	0 0.1 (0.0%) (0.0%) -0.4	0 0.2 (0.0%) (0.0%) -0.5		1 0.2 (100%) (25.0%) 2.2	1 1.0 (100%) (4.3%)	17.78 (.275)
	소양인(O형)	1 .3 (12.5%) (100%) 1.4	4 2.1 (50.0%) (66.7%) 1.9	0 1.7 (0.0%) (0.0%) -1.8	1 1.0 (12.5%) (33.3%) -0.1	1 1.4 (12.5%) (25.0%) -0.5		1 1.4 (12.5%) (25.0%) -0.5	8 8.0 (100%) (34.8%)	
	전체	1 1.0 (4.3%) (100%)	6 6.0 (26.1%) (100%)	5 5.0 (21.7%) (100%)	3 3.0 (13.0%) (100%)	4 4.0 (17.4%) (100%)		4 4.0 (17.4%) (100%)	23 23.0 (100%)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체	태음인(A형)	6 7.0 (7.1%) (37.5%) -0.5	14 11.3 (16.5%) (53.8%) 1.1	14 15.3 (16.5%) (40.0%) -0.5	19 14.4 (22.4%) (57.6%) 1.8	12 13.1 (14.1%) (40.0%) -0.4	8 8.3 (9.4%) (42.1%) -0.1	12 15.7 (14.1%) (33.3%) -1.4	85 85.0 (100%) (43.6%)	13.41 (.767)
	소음인(B형)	6 3.9 (12.8%) (37.5%) 1.3	3 6.3 (6.4%) (11.5%) -1.6	9 8.4 (19.1%) (25.7%) 0.2	9 8.0 (19.1%) (27.3%) 0.5	7 7.2 (14.9%) (23.3%) -0.1	4 4.6 (8.5%) (21.1%) -0.3	9 8.7 (19.1%) (25.0%) 0.1	47 47.0 (100%) (24.1%)	
	태양인(AB형)	0 1.6 (0.0%) (0.0%) -1.4	3 2.7 (15.0%) (11.5%) 0.2	4 3.6 (20.0%) (11.4%) 0.3	2 3.4 (10.0%) (6.1%) -0.9	3 3.1 (15.0%) (10.0%) -0.1	2 1.9 (10.0%) (10.5%) 0.0	6 3.7 (30.0%) (16.7%) 1.4	20 20.0 (100%) (10.3%)	
	소양인(O형)	4 3.5 (9.3%) (25.0%) 0.3	6 5.7 (14.0%) (23.1%) 0.1	8 7.7 (18.6%) (22.9%) 0.1	3 7.3 (7.0%) (9.1%) -2.0	8 6.6 (18.6%) (26.7%) 0.7	5 4.2 (11.6%) (26.3%) 0.5	9 7.9 (20.9%) (25.0%) 0.5	43 43.0 (100%) (22.1%)	
합계		16 16.0 (8.2%) (100%)	26 26.0 (13.3%) (100%)	35 35.0 (17.9%) (100%)	33 33.0 (16.9%) (100%)	30 30.0 (15.4%) (100%)	19 19.0 (9.7%) (100%)	36 36.0 (18.5%) (100%)	195 195.0 (100%) (100%)	

성격유형과 체질에 대한 세 번째 색상선호도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셀의 기대빈도가 5 이상이 되는 셀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인여성 195명은 성격과 체질에 따른 색상선호도의 독립성 검정을 진행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로는 작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 제시의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26>를 제시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토의

제1절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혈액형사상체질, 선호색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성인 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195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7> 연구문제 내용 및 탐색적 분석 결과

연구문제 번호	연구문제 내용	탐색적 분석 결과
1	성격과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가?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첫 번째 선호색상은 연관성이 있다.
2	체질과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가?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과 두 번째 선호색상은 연관성이 있다.
3	성격과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가?	에니어그램과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은 연관성이 있다.

연구문제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성격과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첫 번째 선호색상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이 3가지 색상 중 첫 번째 선호색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선호색상이 개인의 본질을 나타내는 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타고나는 본질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본능형 성인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강색을 첫 번째로 선호하고,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는 색상이 없으며,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보라색을 첫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능 중심의 장형 성격의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사고력과 지도력이 있으며,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앞서 이끄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고 중심의 머리형 성격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친절하고 사려깊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문제2(체질과 색상선호도는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인산 혈액형사상체질과 두 번째 선호색상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 혈액형사상체질의 체질유형이 3가지 색상 중 두 번째 선호색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선호색상이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와 무의식적인 욕구, 결핍, 약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즉시 수용해야 할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고나는 성격과는 달리 체질은 타고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자신이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후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아울러 태음인(A형)의 경우 노랑(yellow)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으며, 소음인(B형)의 경우 보라색(violet)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고, 태양인(AB형)인 경우 남색(indigo)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으며, 소양인(O형)의 경우 빨강(red)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3(성격과 체질은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사상의학에 의한 체질유형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본능형 성인 여성의 경우 태양인(AB형)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태음인(A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소음인(B형)과 소양인(O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 선호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에 따라서 두 번째 선호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과 성격유형은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비자의 성격유형과 체질을 고려하여 선호색상을 달리 할 경우 색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패션뷰티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 맞춤형 컬러테라피, 고객 맞춤형 체질별 아로마테라피, 고객 맞춤형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부관리실에서 B형의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를 상정하면, 소음인(B형)의 경우 보라색을 두 번째 선호색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긍심이 부족하고, 정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객을 위하여 아로마관리를 적용할 경우 체질적으로 음성인 체질을 위한 온성 오일과 중성 오일을 기반으로 블렌딩하여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하면서[90] 관리 중 멘트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모두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 측면에서 유의수준이 10%로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향후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개인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측면만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 타인의 개인에 대한 성경을 판단하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평가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90) 허선화(2018),「아로마테라피에 적용되는 블렌딩오일의 성분 특성에 따른 분류와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9-7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토대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첫 번째 선호색상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사상체질 체질유형과 두 번째 선호색상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성격유형과 체질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탐색하였지만, 3가지 성격유형과 4가지 체질유형의 조합인 12가지 유형별 선호색상에 대한 연관성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 역시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할 경우 연구는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9가지로 설정하고 체질 또한 사상체질의 범주를 넘어서 팔상체질로 확대할 경우 72가지 성격과 체질별 선호색상의 연구를 진행할 경우 다가오는 고객 맞춤형 시대를 대비하는 선도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용숙, 박영로 (2007), 『색채의 이해』, 일진사.
김학성(2001),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문은배(2011), 『색채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이병창(2011), 『에니어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 정신세계사.
정동원(2009), 『혈액형사상 체질음식을 알면 병을 고친다』, 의성당.
주석원(2007), 『8체질의학의 원리』, 통나무.
황태연(2003), 『사상체질과 리더십』, 들녘.
하워드 선, 도로시 선(나선숙 역)(2003),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예경북스.

2. 박사 학위논문

강문수(2014), 「성격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한 사상체질간 성격 및 인지 특성 연구」, 우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미(2018).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반한 청소년 학습태도 척도 개발 및 검증」, 숙명여자대학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효인(2000),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관계」,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수경(2011), 「에니어그램 9번 유형의 건강연속성과 내적경험」,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명숙(2015), 「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순자(2003), 「구르지예프, 베어 및 리소의 에니어그램 비교」,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광옥(2007), 「운동선수들의 사상체질과 MBTI 성격분석」,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송이(2007),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기초한 어머니용 유아양육태도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문성(2020), 「차크라 힐링에 관한 정신신경면역학적 고찰」,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성익(2009), 「운동선수들의 사상체질, 성격유형,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민(2005), 「체격, 체력, 신체조성 및 성격유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선화(2018), 「아로마테라피에 적용되는 블렌딩오일의 성분 특성에 따른 분류와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석사 학위논문

권미란(2012). 「국내 소비자의 전기밥솥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2005), 「색채명상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구(2006),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2010), 「색을 통한 미술 심리치료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희(201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부모코칭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2014), 「스마트 폰 외관 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2014), 「혈액형별 사상체질에 따른 약용작물 발효액 분류 및 효능에 관한 문헌적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일(2010), 「성인의 자아구조유형과 사상체질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우(2005), 「에니어그램의 측면에서 본 영적 지도」,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준(2008), 「꽃과 색 및 형태분석이 인체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삼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재원(2012), 「에니어그램 집단상담을 통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아(2008), 「윌버의 의식스펙트럼 입장에서 본 에니어그램 자아초월적 의미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갑선(2009), 「사상체질과 에니어그램에 따른 대학생의 비만 연구」,전주대하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선진(2006), 「퍼스널 컬러 시스템에 따른 네일 컬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지선(2006), 「자아성장을 위한 에니어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구르지예프와 리소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희(2012),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국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진(2020), 「유아의 색채선호에 따른 정서지능과 창의성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화(2018), 「네일 서비스 추구혜택과 색채 선호도가 고객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원(2018), 「심리유형이론(MBTI)과 사상체질에 관한 문헌 고찰」,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희(2005), 「현대 공간의 색채언어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명(2015), 「에니어그램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주(2016), 「차크라 각성과 아로마테라피의 파동에너지적 관계 연구」,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미(2004), 「사상의학 체질과 리더십 스타일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예선(2007), 「브랜드와 색채의 상관성에 따른 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승관(20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UI 특성에 따른 힐링 색채에 관한 연구 :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선형(2017), 「컬러테라피를 이용한 네일 서비스가 심리적 건강이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화(2008), 「아유르베다의 바타, 피타, 카파체질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 연구-사상체질과의 체형과 성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의학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원(2012), 「제품색채에 따른 소비자 감성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태홍(2006), 「기업체 구성원들의 사상체질 유형과 리더십 유형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학회지

김봉현, 이세환, 조동욱(2008), 「음성분석 정보 값 비교를 통한 사상체질 태음인의 분류」,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15(1), pp.17-24.

김유정(2006),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선호하는 향과 색에 대한 분석」, 한국에니어그램학회 에니어그램연구, Vol.2(1), pp.45-63.

김현수(1999), 「에니어그램의 계보와 발전과정 소고 - Gurdjieff와 Ichazo의 계보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과학학회지, Vol.3(2), pp.19-42.

박기원(2005), 「에니어그램Enneagram-상담과 지도」, 한국카운슬러협회, Vol.40(40), pp.108-122.

박윤희, 최은영(2008), 「알코올중독자의 능동적 심상을 통한 자유화 색채특성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pp.105-128.

서복희, 이근매(2013), 「색채심리의 유효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Vol.9(1), pp.139-160.

서유리(201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인지도 및 선호도 차이-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Vol.27(2), pp.95-108.

오명숙, 박현경, 윤운성(2013), 「한국형에니어그램 단계교육이 심리적 안녕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Vol.10(1), pp.103-127.

윤운성(2004), 「에니어그램과 진로」, 한국에니어그램학회, Vol.1(1), p.9-24.

윤혜란(2017), 「에니어그램심리역동과 컬러와의 연계성 고찰-심리에너지중심으로-」, 에니어그램심리역동연구, Vol.4(2), pp.19-53.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영좌(2017), 「AURA 컬러와 에니어그램 9가지 성격유형과의 유사성 연구: Don Richard Riso와 Russ Hudson의 저서 『The Wisdom of the Enneagram』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기술에서 AURA컬러 성격유형 유사성 발견」,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지, Vol.1(1), pp.77-97.

이종우, 성갑선, 엄혜정(2009), 「사상체질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비만 예측」, 한방비만학회지, Vol.9(2), pp.21-32.

정현선, 김예원(2018),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이미지와 색채 선호도의 상호 연계성 연구-20~30대를 대상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9(1), pp.512-521.

조주영(2006),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분석」, 에니어그램연구, Vol.3(2), pp.37-61.

지미선(2016), 「성인학습에서의 전환학습과 에니어그램 관련성 연구」, 에니어그램연구, Vol.13(2), pp.81-104.

한정아(2011), 「MBTI에 의한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선호 컬러 및 톤의 관련성」, 한국디자인문학회지, Vol, 17(1), pp.641-652.

허선희, 윤천성(2014), 「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행동방식과 사상체질의 상관관계 연구」, 뷰티산업연구, Vol.8(1), pp.43-61.

5. 외국문헌

Hobgood D(2011). 「Personality traits of aggression-submissiveness and perfectionism associate with ABO blood groups through catecholamine activities」. Medical Hypotheses, Vol.77(2), pp. 294-300.

Kim C, Yi S(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one's blood type on emotional character and antistress of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6), pp. 2554-2560.

Luscher M(1987), 「The Luscher Color Test」, Pan Books: Lond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체질, 색상선호도, 성격의 연관성 조사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성인의 체질, 색상선호도, 성격의 연관성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본 자료는 연구목적을 위한 조사로서 설문에 대한 개인적, 영업적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뷰티보건 및 패션 분야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뷰티전공
석사과정 전진숙
지도교수 : 손영미 교수님

다음 질문에서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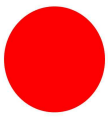
(1)	A 형	
(2)	B 형	
(3)	AB 형	
(4)	O 형	

2. 귀하께서 생각하는 귀하의 에니어그램 유형은 무엇입니까?

(1)	1번 유형		(4)	4번 유형		(7)	7번 유형	
(2)	2번 유형		(5)	5번 유형		(8)	8번 유형	
(3)	3번 유형		(6)	6번 유형		(9)	9번 유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다음의 색상 카드 중에서 세 개의 선호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빨강 (적색)	주황 (주황색)	노랑 (황색)	초록 (녹색)	파랑 (청색)	남색	보라 (자주색)

◉ 귀하께서 선택한 색상을 선호 순서대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상	1 순위	2 순위	3 순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4.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 귀하의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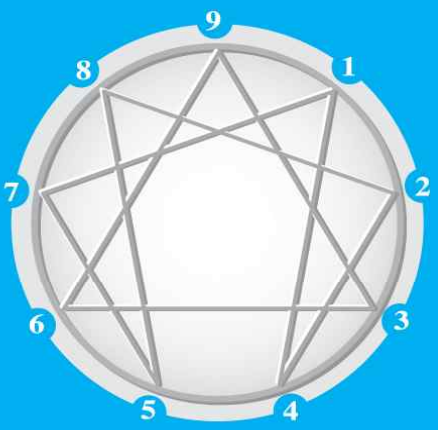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

Korean Enneagram Personality Type Indicator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KEPTI)

윤 운 성 교수 저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Korean Enneagram Education Center
http://www.kenneagram.com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은 여러분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문항은 맞고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생각하여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

검사지의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 근거하여 자신에 해당하는 적당한 숫자를 응답지의 □ 안에 써 넣으시오.

보 기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검사지 및 응답지 예

검사문항	검 사 내 용	응 답 지
1	나는 미래지향적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인산 혈액형 사상체질, 색상선호도의 연관성 연구

색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 심리학, 예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건축, 디자인, 보건, 생리학, 패션 등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색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 연령, 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개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의 지리적 특성, 개인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 등등과 같은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색에 대한 물리적, 심미적, 심리적 인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과 체질에 따라서 색상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 CRR 분석법에 의한 색상선호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대한민국 패션뷰티 분야의 20대~60대의 성인 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81문항으로 구성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체질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산 혈액형사상체질 이론에 의한 혈액형을 조사하였으며, 색상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선호색상을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195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첫 번째 선호색상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능형 성인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강색을 첫 번째로 선호하고,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는 색상이 없으며,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보라색을 첫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산 혈액형사상체질과 두 번째 선호색상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A형)의 경우 노랑(yellow)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으며, 소음인(B형)의 경우 보라색(violet)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고, 태양인(AB형)인 경우 남색(indigo)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으며, 소양인(O형)의 경우 빨강(red)을 두 번째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사상의학에 의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체질유형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능형 성인 여성의 경우 태양인(AB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형 성인 여성의 경우 태음인(A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지형 성인 여성의 경우 소음인(B형)과 소양인(O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 선호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혈액형사상체질 체질유형에 따라서 두 번째 선호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과 성격유형은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비자의 성격유형과 체질을 고려하여 선호색상을 달리 할 경우 색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패션뷰티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객 맞춤형 컬러테라피, 고객 맞춤형 체질별 아로마테라피, 고객 맞춤형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